

장학월보

2010
제214호(통권433호) **12**

- 장학특집 / 독서교육
- 교육정보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 전문가 초대석 / 학교조경 및 학교 숲 관리 이렇게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슬로건 및 캐릭터 공모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추진에 있어 슬로건 및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주제

'책 읽는 도민, 희망찬 경남교육'을 비전으로 도민이 책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내용

• 공모분야

슬로건 및 캐릭터

• 공모 기간 및 방법

2010.11.17.(수) ~ 12.3.(금) 온라인 및 우편접수

• 응모 자격

누구나(지역, 자격제한 없음)

• 시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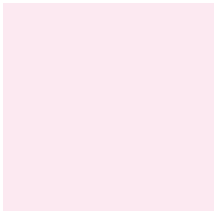


구분	시상 내역(분야별)	부상	
		슬로건	캐릭터
대상	1 편	50만원	50만원
최우수	1 편	30만원	30만원
우수	2 편	20만원	20만원
장려	5 편	10만원	10만원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0. 12 제214호(통권 433호)



02 권두언

• '책 읽는 학교,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만들기로 경남교육이 더 즐거워집니다. / 고영진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교육 칼럼

• 정책과 홍보 / 이현욱

08 특집 / 독서교육

• 책 향기 속에 꿈을 키우는 아이들 / 박미란
• 다양한 독서활동과 보상으로 책과 친구되기 / 이수경
• 책 속에 드니, 천지가 인생이여라 / 오정희
•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 열린 도서관 / 김용화

20 전문가 초대석

• 학교조경 및 학교 숲 관리 이렇게 / 안현철

23 수업기술 나누기

• '후프 체조'로하는 표현 활동 자신 있어요! / 차은숙
• 마인드맵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 심수미

28 교육정보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31 이색 교육 현장

• 삼동초,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 이혜진
• 교육공동체 모두가 즐거워하는 골프교실 / 고학병
•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주역이 될 글로벌 인재 만들기 / 이호철
• 대양에서 거가는 미래의 핵심인재 / 송치욱
• 화개골의 힘찬 디딤, 벚꽃 누리 배움터 / 김영수
• 음악이 너무 좋아요 / 정윤호

47 미담사례

• 선생님당신이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 편집위원 구현숙

51 참여마당

• 교 원 - 독서에 대한 단상 / 신상국
- 산길 / 하정용

• 학부모 - 예영이와 함께 한 잊지 못할 추억 / 유순주

• 학 생 - 표정 / 정다연

59 향기나는 서가

• 소설『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 김해경

61 음악이야기

• 울게 하소서(Lascia Ch'io Pianga) / 김민주

63 지상갤러리

• 춘포 / 이명숙

▶ 표지사진 - 박재철(함안 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월호 모집 기간 : 2010년 12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0년 12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강대룡 • 편집주간 :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김정희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재철,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책 읽는 학교,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만들기로 경남교육이 더 즐거워집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큰 뜻으로 시작했을 한 해의 계획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자원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이자, 상대적 가치관이 확산되는 포스트-모던(post-modern)사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려면 미래 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만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자, 인간을 만드는 숭고한 예술입니다

또한 교육의 궁극적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발굴하여 잠재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시켜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세계의 가장 유명한 석학들을 배출한 하버드대학도 이론과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이상의 특기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두뇌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를 골고루 움직여 나갈 때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교육이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 기본 교육이 튼튼해야 할 것이며,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가 다양한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며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21세기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이며 경제적인 풍요와 문화적인 성숙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잠재능력 발굴과 학습능력 신장,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책 읽는 학교,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책을 읽으며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래를 통해 화합과 소통을 배우고, 운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규칙을 배워 나가는 건전하고 건강한 경남의 학생들을 육성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격화된 기존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독창성과 아이디어는 다양한 교육 활동 속에서 더 창조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앞으로 ‘책 읽는 학교,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를 만들어 학교가 가장 즐거운 학생들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0. 12.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06

- 01 경남교육종합복지관 기공식
- 02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선수대표 격려
- 03 스카우트지도자대회 명예연맹장추대
- 04 창원중앙고 방문 대입수능 듣기평가
방송사고 대비 녹음기 비치현황 점검
- 05 경남교육공무원노조 성금 접수
- 06 학부모감사관 위촉장 수여



07—



08—



10—



09—



11—

- 07 경상남도유아교육원 - 동티모르 사랑나누기
- 08 거창교육지원청 - 치즈마을 방문
- 09 김해도서관 - 2010 독서아카데미 2기 개강
- 10 통영교육지원청 - 통합현장체험학습
- 11 낙동강학생수련원 - 양궁실습 모습
- 12 밀양교육지원청 - 제4회 교육장배 초·중학생 건강줄넘기 대회



12—

정책과 홍보



이 현 옥

경상남도교육청 기획공보담당관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홍보매체가 존재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공중(公衆)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즉흥적인 홍보방법으로는 효율적인 홍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정책입안 시부터 여론 수렴 등 체계적인 홍보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모든 정책의 실행도 ‘홍보가 정책의 절반이다’라는 인식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도교육청의 한 초등학교에서 추진한 방과후 ‘공부방’에 대해 언론의 시각에 따라 보도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사례의 내용은 농번기 방과후 학생들의 관리가 어려운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에서 저녁을 제공하고 ‘공부방’을 운영한 사례이다. A언론사에서는 ‘일제고사 부작용, 초등학생 8시까지 보충수업’이라고 보도하면서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일제고사 준비라는 표현)과 저녁식사시간 김치와 멸치, 오징어무침인 식단을 소개하면서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였다. 이 동일한 사례에 대해 B언론사는 ‘산골초등학교의 보충수업’이라는 보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요즘 교사들은 무료 봉사수준의 야간 보충수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학교측도 학교급식소 야간 운영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산골학교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운영 중인 야간 공부방을 무조건 문제풀이 시키는 보충수업으로 매도한 것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경솔한 보도라고 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건의 단면만을 보도한 언론사의 왜곡된 시각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일을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알려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홍보는 정책입안 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홍보는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여론을 진단하고 정책에 이를 반영해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입안 시 반드시 사전 홍보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홍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잘된 정책이라도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를 받기 어렵다. 한번 발표한 정책은 지켜져야 하며, 순간적인 어려움을 모면하거나 여론의 화살을 피해 나가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실에 입각하여 있는 그대로를 알려야 한다.

셋째, 정확한 여론을 읽어야 한다. 언론은 속보성이 생명이다. 보도의 타이밍을 놓칠 경우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기사화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항상 비판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분석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항상 언론이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예측하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리되 담당해야 한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뉴스거리를 만들고 오보·왜곡보도를 최소화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의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호의를 구걸할 필요가 없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섯째, 기획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교육청홍보(Provincial Assembly Public Relations)란 교육청이 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목표, 운영 및 성과 등을 홍보하거나 관련 업무에 교육공동체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이다.

기존의 홍보는 주로 언론 관계에만 치중되어 왔으며, 홍보가 ‘언론 섭외’를 일컫는 말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적극적 사고 전환으로 언론을 행정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언론 전반에 대한 지식 함양, 기자생리 파악, 언론의 메커니즘 파악이 필요하다.

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지기반 확보, 계도 및 동원 목적의 홍보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통합적 이미지 구축, 수용자 중심의 양 방향 커뮤니케이션 홍보 시행, 인력의 전문화로 민간 전문가 활용 및 여론조사를 근거로한 정책 수립, 중장기 홍보계획 등 맞춤형 홍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보는 언론의 잣대로 가감되기 마련이다. 언론 보도만으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알릴 수 없으므로, 국민이나 정책대상에게 직접 다가서는 대국민 직접홍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언론대담, 인터뷰도 언론 기고와 함께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홍보수단이 될 것이다. 내년에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과 주요정책들이 예산수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도의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수요자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일 때 가능할 것이고, 모든 정책에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책 향기 속에 꿈을 키우는 아이들



박미란
남해 남해유치원 교사

1. 들어가며

유아들은 책을 좋아하고 책 읽기를 즐기는 것 보다 부모의 강요나 교육기관의 과제로 인해 아무런 의미 없이 책을 읽는 경우가 많다. 단지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책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유아의 성숙하고 원만한 인성의 계발을 도우며,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총체적으로 지혜를 갖고 닦는 소양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책 읽기를 좋아하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따라서 책을 가까이하고 실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독서교육이 필요하다.

본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에게 책보기를 즐기며 전인적인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도록 편안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심어 주고자 한다.

2. 펼치며

독서습관은 어렸을 때 형성되므로 가정과 유치원에서 독서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유아들이 독서교육을 통해 책의 즐거움을 느끼고 흥미를 가지게 하여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책을 읽는 습관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책을 사랑하는 유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본 유치원 독서교육 강화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 천 과 제	실 천 내 용	목표
책 속에서 보물찾기	- 매일 책1권씩 읽기 - 좋은 책 목록, 신간정보 제공 - 책 주고받기 운동 전개	매일 월1회 연1회
친구야! 책 읽자	- 학급문고 설치 - 책보고 난 뒤 추후 활동하기 - '내가 좋아하는 책' 친구에게 들려주기	월1회 매일 매일
요술쟁이 생각주머니	- 독후감상화 그리기 - 지역 도서관 현장학습 - 남해도서관 경남유아교육원 전자책 활용 - 매월 독서왕 선정 시상 (책을 사랑하는 어린이상 시상)	수시 연1회 연1회 월1회
독후감 발표회	- 월 1회 독후감 발표회 개최	월1회
책사랑 도서실 가는 날	- 내가 좋아하는 책 읽기활동 - 선생님과 함께 동화 듣기	주1회
도 서 대 여	- 원아 및 학부모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	수시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 남해여성회 '읽는 모임' 에서 방문하여 책 읽어주기	주1회

가. 책속에서 보물찾기

책 읽기를 위한 환경 제공을 위해 각 교실에 도서를 연령별(학급별)로 분류하고 학급 문고를 설치하여 유아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게 하였으며, 매월 1회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여 목록과 신간정보를 부모님께 배부하였다.

나. 친구야! 책 읽자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독서를 하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언어활동을 위한 공간을 고려하여 생활주제와 관련된 동화책을 제시하고 친구에게 내가 좋아하는 책 들려주기 활동으로 연계하여 많은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사고력과 창의력이 향상 되었다.

다. 요술쟁이 생각 주머니

다양한 독후감상화 활동지를 비치하여 책을 읽고 유아들 스스로 이야기를 유추하고 상상하여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화전도서관과 남해도서관을 견학 하고 전자책을 활용하여 책에는 유아들이 보는 그림책 이외의 다양한 책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매월 독서왕을 선정하여 책을 사랑하는 어린이상을 시상하였다.

라. 독후감 발표회

매월 첫째주는 전 원아들이 강당에 모이고 이달의 독서왕상을 받은 원아는 독후감 발표를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해유치원 〇〇반 〇〇〇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〇〇 〇〇입니다. 〇〇〇 내용이 제일 재미 있었습니다.” 등으로 연령에 맞게 발표를 한다.

마. 책사랑 도서관 가는 날

유아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도서를 구입하여 책사랑 도서관을 조성하여 책을 비치하고 유아들이 좋아하는 책을 골라 자유롭게 보는 활동을 통해 도서관이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매주 책사랑 도서관 가는 날을 정하여 선생님과 함께 동화듣기 활동으로 유아들이 책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바.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

원아와 학부모 및 지역민에게 수시로 책을 대여하고 책을 많이 읽도록 홍보하고 있다.

사.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남해여성회 ‘책 읽는 모임’에서 선생님 2분이 방문하여 전 학급을 순회하며 동화책을 읽어주어 유아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인성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3. 맺으며

유아들이 독서교육을 통하여 폭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유치원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함께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책에 대한 흥미와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다양한 독서교육으로 유아들이 책은 재미없고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고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독서교육의 생활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책 속에서 보물을 찾아요



책을 읽고 독후감상화 그리기



독서왕 시상식



‘책사랑’ 도서실의 모습



남해도서관에서



독서 발표회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책속에는.....

다양한 독서활동과 보상으로 책과 친구되기



이수경
통영 인평초등학교 교사

I. 운영 목적과 중점

체계적인 학교 독서 교육을 실시하여 독서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고, 자기 주도적 학습, 종합적 사고와 창의력을 길러 개个人的 건전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교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도서 도우미 어머니 활동을 통한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로 독서 교육의 바람직한 장을 마련하고 둘째, 학생들에게 아침 및 저녁 독서 활동 습관 형성을 위해 '0818운동'을 실시하고 셋째, 학력인증제 학습장을 활용한 '독서인증제'를 운영하여 독서의 생활화 유도 및 책임기의 즐거움을 고취하여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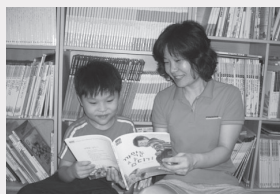
II. 운영의 실제

1. 학교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도서도우미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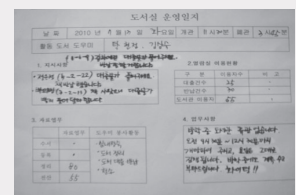
전문 사서 교사가 없는 본교 학교 도서관의 실정에 따라 학교도서관 관리 및 자료의 수서와 정리, 장서 점검 등을 위해 '학부모 도서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20명의 학부모가 순번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방학 중에도 드림공부방을 개방하여 아동 관리와 지도에 힘쓰고 있다.



어머니 자원봉사자



책 읽어주기



도서관업무일지

2. '독서 0818 운동' 전개

학교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자습시간 독서 30분 운동을 통해 사제동행 독서 활동을 하였다. 가정에서 방과 후 독서운동을 오후 6시 이후로 운영하여 부모님과 독서와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3. 실력 UP 야간 도서관 개방 '드림공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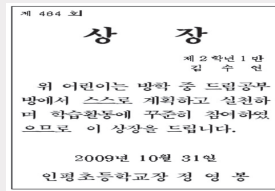
교과부진, 맞벌이 가정 학생,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야간 도서관을 개방(월요일~금요일, 18:30~20:30)하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과제 및 학습, 독서 등을 하며, 공부방 담당 교사(본교 희망교사 윤번제)는 학습조력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정 학습기능을 보완하였다. 자기 학습력이 우수하고, 꾸준히 참여하는 학생은 월별 시상하였다.



드림공부방



개인 출석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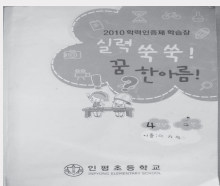


우수 참여 학생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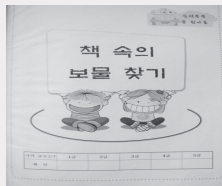
4. '독서 인증제' 운영

1년간(3월~12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독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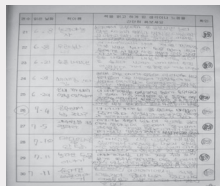
실천 내용	실천 방법	시기	담당
추진계획 수립	• 연간 추진 계획 수립	3월	도서 담당
필독도서 선정	• 필독·권장도서 - 각 학년별 선정, 도서 구입	3월, 연중	도서선정위원
독서 지도	• 독서 진행상황 - 독서 급수표 누가기록 • '학력 인증제 학습장'에 독후활동 기록	연중	담임
인증서 수여 및 독서 인증 평가기록	• 독서량과 독후활동 기준에 통과된 아동에게 인증서 수여	12월	도서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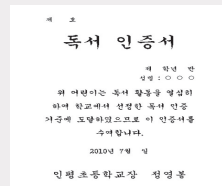
학력 인증제 학습장



독서 인증제



독서 기록장



독서 인증서

5. 독서·논술 관련 교내 학예행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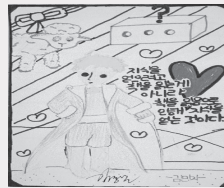
7월과 12월에는 독서 인증제에 도달한 학생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도서 열람·대출 실적과 독후 활동 실적을 합하여 높은 순위에 따라 다독왕 시상을 하였다. 10월 독서 주간 학예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였는데, 저학년은 독후 감상화, 고학년은 독서 감상문을 적었다. 주제에 따른 독후 표현 활동을 통한 창의력 신장을 위해, 1~2학년은 책사랑 엽서 만들기, 3~4학년은 책갈피 만들기, 5~6학년은 북아트(피자책 만들기)를 하여 우수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였다.



다독상·인증서 수여장면



책사랑 엽서 만들기



독서 엽서 만들기



독서사랑 피자책 만들기

6. 전자도서관 '북토비' 활성화

올해에 전자 도서관 '북토비'를 운영하게 되었다. 4월에는 '북토비'를 시범 운영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홍보와 사용 설명 연수가 있었다. 북토비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학급 내 독서 현황을 담임 선생님들께서 점검하고, 학생들은 전자도서관에서 독서와 독후감 작성을 통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에게는 북토비 시상을 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북토비 지속 운영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전자도서관 '북토비' 전면 시행을 결정하여 계속 운영되고 있다.



북토비 활용장면



북토비 홈페이지



북토비 독서감상문

학년·성·성명	점수	순위	학년·성·성명	점수	순위
4.1.1.1. 김민준	1000	1	4.1.1.1. 김민준	1000	1
4.1.1.2. 이준우	950	2	4.1.1.2. 이준우	950	2
4.1.1.3. 박지현	900	3	4.1.1.3. 박지현	900	3
4.1.1.4. 정민서	850	4	4.1.1.4. 정민서	850	4
4.1.1.5. 최하연	800	5	4.1.1.5. 최하연	800	5
4.1.1.6. 김민준	750	6	4.1.1.6. 김민준	750	6
4.1.1.7. 이준우	700	7	4.1.1.7. 이준우	700	7
4.1.1.8. 박지현	650	8	4.1.1.8. 박지현	650	8
4.1.1.9. 정민서	600	9	4.1.1.9. 정민서	600	9
4.1.1.10. 최하연	550	10	4.1.1.10. 최하연	550	10

북토비 독서실적

III. 운영의 효과

체계적인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독서 풍토를 조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 습관이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야간 드림 공부방 운영과 학력 인증제 학습장과 연계된 독서 인증제의 운영을 통해 학력 향상과 더불어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개정교육과정에 대비 할 수 있고, 더불어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에 밑바탕이 되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 가능한 종합적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길러 학생들 개개인의 건전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책 속에 드니, 천지가 인생이어라

- 진주중학교 독서교육활동 -



오 정 희
진주중학교 교사

I. 들어가며

전국적으로 독서 교육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2010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독서교육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본교는 도서관이 본관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별관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도서관 관리를 위해 학생 중심의 사서반을 구성하여 도서의 대출과 반납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보다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자주 드나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그리하여 아홉 가지의 행사를 통해 독서교육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다양한 독서교육활동

1. 독서로 여는 아침

책 읽는 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해 아침 시간(08:30 ~ 09:00)을 활용하여 학기초 부터 책읽는 교육을 실시해 왔다. 하루 일과 중 이때만큼은 무언의 시간으로 오직 독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아침 독서 시간 운영

2.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사천도서관과 함께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본교는 다양한 독서 행사를 계획하려 노력하고 있다. 학기 중에 '독서토론논술여행'과 '독서와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으며 독서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1학기 독서토론논술여행



2학기 독서와 글쓰기

3. 점심시간을 쪼개어가며 읽었던 책

점심시간에 잠깐 여는 도서관이지만, 학생들이 여간 많이 오는 게 아니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언제 대출을 해 왔는지, 하루 통계를 보면 대출과 반납이 꽤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 독서하는 모습

4. 작가의 흔적을 찾았던 문학기행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하동으로 문학기행을 떠났다. [토지]의 주 무대였던 하동을 직접 찾으며 그 체취를 느끼고 싶었다. 하동은 박경리 소설의 무대라는 사실과 이병주라는 작가의 숨결이 살아있었다. 이병주 문학관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었다.

5. 장서 점검을 통한 도서관 업무 파악

여름방학을 하고 보름 남짓 지난 무렵에 장서 점검을 하였다. 사천도서관에서 두 분이 오시고, 사서반 학생 두 명과 함께 꽤 늦은 시간까지 소재가 불명한 도서를 찾았다.

6. 함께하는 독서여행

2학기 독서교육을 재정비하면서 홈페이지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던 중, 학생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홈페이지를 재정비하여 릴레이식으로 자기가 읽은 책의 목록을 적고 간단한 소감을 적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7. '책의 날'에서 알게 된 도서사랑

늘 접하던 도서를 도구 삼아 이모저모 따져보는 책의 날 행사를 하였다.



독서감상화 그리기



책광고 그리기

8. 독서 논술반 운영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침 시간마다 독서논술반이 운영된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읽기와 쓰기를 통해 논리적인 사고력을 함양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독서논술반 청강 모습



독서논술반 강의 모습

9. 진중 독서 골든벨 행사

11월 학교 학예제 열린마당의 한 부분으로 독서 골든벨 행사를 하였다. 전 학급 대표 60명이 응기종기 앉아서 문제를 푸는 모습이 흡사 텔레비전에 보여지는 골든벨 프로그램의 모습 같았다.



독서골든벨 행사 장면



골든벨 우승자들의 모습들

III. 나가며

점심시간만 되면 도서관에 오는 1학년 학생이 있다. 두리번거리며 도서관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사라지곤 하는 아이다. 한번은 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저, 선생님, 사서반은 어떻게 뽑아요?”

내가 픽 웃으며, “왜, 들어오려고 그러니?” 하니까, 그 애가 이렇게 말했다.

“형들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도서관을 마음대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아이에게 내년 사서반 특채로 뽑아 줄 것을 약속하는 내 마음이 너무 흐뭇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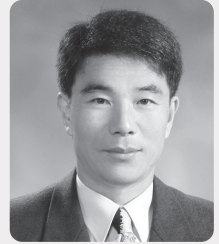
2010년을 갈무리하기에는 이르지만, 진주중학교 독서교육을 조심스럽게 점검해 본다. 작가의 숨결을 찾아서 떠났던 문학기행, 전문가의 실력 있는 강의, 홈페이지가 다운 될 정도로 많이 올린 릴레이 글들.....

첨단 기자재가 난무하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책만큼은 종이에 활자가 찍혀진 것이 진짜 책 같다는 아이들을 보면서 전자책을 선호하던 내 모습을 반성해 본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진주중학교 학생들.

너덜너덜해진 책만큼 너희들의 머릿 속에 지식이 가득하길 바라고,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그 열정, 그 정신을 맘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 열린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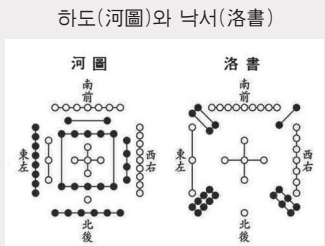


김용화

사천 삼천포고등학교 교사

도서관(圖書館)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끝 글자에 ‘집’을 뜻하는 관(館)이라는 말이 합해져 만들어졌고 합니다.

‘하도(河圖)’는 복희씨(伏羲氏) 때 황허(黃河) 강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그림이고, ‘낙서(洛書)’는 우(禹) 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신비한 거북이(신귀: 神龜)의 등에 쓰여 있었다는 글입니다. 하도(河圖)를 바탕으로 복희씨는 우주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8괘를 만들었고, 낙서(洛書)에는 우주만물의 생성과 조화 그리고 천지운행의 이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고대의 제왕들은 하도와 낙서를 통치의 근간으로 여겼으며, 도서관(圖書館)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를 모신 곳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만, ‘도(圖)’와 ‘서(書)’란 용어가 고대의 하도와 낙서에서 유래되어 전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도서관’이란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한참 뒤인 1880년 일본이 시초이며, 1898년 중국에서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역수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이란 용어가 쓰이기 전에 도서관 기능을 가진 곳을 ‘서적관(書籍館), 서적원(書籍院), 집서원(集書院), 서고(書庫), 문고(文庫)’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그러다 대한제국 광무 10년(1906년), 도서관의 필요성을 절감한 윤치호, 박종화,

이범구 등이 '한국도서관' 창설을 위한 평의회를 구성하고, 황성신문이 이를 '한국도서관(韓國圖書館)'이란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bibliothek(비블리오테크)', 혹은 'bibliothèque(비블리오테끄)' 등이 도서관을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고대에 책의 역할을 했던 'papyrus(파피루스)'의 주된 교역 창구가 'Biblos(비블로스)' 항구였던 까닭에 Biblos(비블로스)는 파피루스, 혹은 책을 대체하는 단어이자 동의어가 되었으며 여기에 장소적 의미를 담고 있는 '테크(-theke)'가 더해지면서 지금과 같은 도서관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도서관을 'library(라이브러리)'라 하는데, 고대에 책의 역할을 했던 '나무껍질(樹皮, 수피)'을 가리키는 말 'liber(리베르)'에 장소적 의미가 더해져 'librarius(리브라리우스)' 등으로 변하였고, 14세기 이후에는 도서관을 의미하는 'library(라이브러리)'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삼천포고등학교에는 438개의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그 꿈을 찾아 자신을 가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린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을 언제나 손쉽게 접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지식이 축적된 책들을 읽으면서 성인(聖人)이나 현자(賢者)를 만나 멘토로 삼고 실력을 키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 열린 도서관. 선진형(A-Type)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로서 학생이 꿈을 찾고, 가꾸며, 실현하는 DREAM SCHOOL 삼천포고등학교의 열린 도서관에서 그 꿈들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비전〉 DREAM SCHOOL



열린 도서관은 위치적으로 본관 건물과 신관 건물 중앙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습니다. 교과수업 이동시 중심 공간이 되는 곳에 개방식 도서관을 배치하여 학습 준비 공간 및 모든 학생이 독서습관을 가질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을 갖추어 구축되었습니다. 교과교실제 실시로 매시간 지정된 교실로 찾아가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

에게, 학교의 중앙에 위치하여 홈페이지 역할을 했던 곳이 접근적 편의성 및 공간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독서와 학습을 위한 공간인 열린 도서관으로 재탄생하게 된 곳입니다.

아침에는 신문을 읽고, 이슈에 대해 친구와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는 별다른 대출과정 없이 책을 꺼내 읽을 수 있으며,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의 토론 및 대화가 가능하고, 저녁시간에는 자율학습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특별한 절차 없이 책을 빌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옆에 위치한 자기주도적 학습실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10개의 신문과 정보검색대 5개, 많은 예산으로 제공되는 신간 도서 등은 학생들의 독서 능력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곳은 수업 준비 및 휴식 공간으로서의 다목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도서 및 소지품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였고 게시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 전달, 학교 행사 홍보, 각종 교육활동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꿈을 찾고, 가꾸며, 실현하는 DREAM SCHOOL의 밑거름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우리 학생 438명의 꿈이 이루어지는 ‘열린 도서관’이 ‘삼천포고등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가/초/대/석



안 현 철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학교조경 및 학교 숲 관리 이렇게.....



학교조경과 숲조성에 있어서 식물은 가장 중요한 소재이며, 그 중에서도 수목과 잔디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식물과 조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경양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조경설계가 잘 되어 있다 하여도 시공된 식물이 잘 살지 않거나 생육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조경공간은 결국 보기만 흉한 공간으로 남기 때문에 식물의 생리, 생태적특성, 생육환경, 그리고 식재시공 관련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앞으로 글을 실는 순서는 조경식재공사와 관련해 수목의 이식 전 준비사항, 굴취, 운반, 가식, 식재, 식재 후의 작업, 이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공과정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며, 이번호에서는 이들과 관련되어 많이 쓰이는 용어, 수목식재 시공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학교조경 및 숲조성에 식재될 수목이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수목식재공사 관련 용어의 정의

가. 조경수목이란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기능, 건축적기능, 공학적기능, 기상학적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나. 이식이란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 식재하는 것으로서 전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식재란 어떤 장소에 반입·운반된 수목을 식재 기준에 맞추어 심는 행위를 말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식재구덩이 파기, 나무 앉히기, 되메우기, 지주목설치, 비료주기, 물주기, 가지치기(전정), 약제살포,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 한다.

라. 가식(임시식재)이란 식재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임시로 식재하는 행위로서 식재의 여러 조치 중 일부만 포함된다.

2. 수목식재시공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공간별 수목의 기능적, 생태적, 심미적 측면은 물론이고, 수목의 생태적 특성 및 수목간의 생태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대상지역의 토양 및 기후 등의 자연적 조건과 기존식생, 각종 지하매설물과 구조물, 토양의 오염상황 등을 포함한 식재환경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부적기 식재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식재계획구역내의 자생수목은 정밀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세우고 지형조성공사 시행 전에 이식·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라. 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식재공사의 주재료인 수목은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생의 활용 및 보존을 적극적으로 입하여 조성된 녹지공간이 친환경적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필요한 경우 조경 및 숲공간은 독립된 생태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생태계 네트워크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학교조경 및 숲조성에 식재될 수목이 갖추어야 할 조건

우리나라에는 약 1,000여 종에 이르는 수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도입되어 좋은 생육상태를 보이는 외래수종도 상당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목이 조경이나 숲조성에 적합한 것이 아니며 그 목적이나 기능, 기타 환경인자에 따라 알맞은 수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조경 및 학교숲 조성에 식재될 수목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목의 외부형태적인 미적 표현조건은 조경의 예술성을 높이기 때문에 수형, 생활형이나 색채, 계절성 등의 경관적인 특색이 조경의 장소에서 공간적·시간적인 미적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모든 식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본래 기능으로서의 번식력이나 이식력 등의 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조경과 숲조성 장소에 있어서는 생리·생태적인 환경적응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은 학교조경 및 숲조성에 식재할 수목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수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식작업이 용이하고 활착이 잘되며, 척박한 땅에서도 잘 견디는 나무
- ② 열매가 많이 달려 다람쥐 등의 야생동물의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나무
- ③ 열매 또는 잎이 아름다운 나무
- ④ 수목의 구입이 용이하며 지정된 규격에 적합한 나무
- ⑤ 병충해 피해가 적고 관리하기 쉬운 나무
- ⑥ 수세가 강하고 맹아력(움싹돋음)이 강한 나무
- ⑦ 낙엽활엽수의 경우 여름철에 녹음이 짙은 나무
- ⑧ 식재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등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큰 나무
- ⑨ 수명이 가급적 긴 나무 등

이와 같이 수목의 계절적 특성과 고유수형, 크기 등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고, 다른 수목과의 조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여러 수목이 혼식되는 경우에는 각 수종 상호 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수종 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종에 따라 대기오염, 염해, 동해, 건·습해 등 각종 환경인자에 대한 적응정도가 다르며, 이식에 대한 적응력 및 생장속도 등에 차이가 있는 한편, 수형이 일정한 것, 꽃이나 단풍이 아름다운 것, 또는 열매 맺는 것 등 여러 가지 특색이 있기 때문에 식재목적이나 식재장소에 따라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인공지반, 임해매립지, 비탈면, 공장주변 등의 특수지역에 있어서의 수목식재는 적합한 수종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후프 체조’로 하는 표현 활동 자신 있어요!



차 은 숙
김해 대청초등학교 교사

신체 활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 체력, 스포츠 정신과 공동체 의식,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 신체 문화 인식 등의 능력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 수행 중심의 체육 교과를 지향하는 2007 개정 체육과의 철학적 전환을 바탕으로 하여 교사, 학생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4학년 ‘표현 활동’ 영역의 3단원 ‘기구와 하나가 되어’ 제재 중에서 ‘후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음악에 맞추어 표현해 봅시다.’ 하는 차시의 교수·학습 활동 전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후프를 이용한 40분의 교수·학습 활동 전개

가. 탐구 수업 모형 적용으로 수업의 열개를 잡고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학생들의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시 될 수 있도록 학습여건을 조성하여 후프를 이용한 다양한 움직임을 노래에 맞추어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 량	자료(자) 및 유의점(유)
학습 단계	학습 요소			
탐구 문제 설정	학습 활동 전개 활동1	○ 학습 활동 전개 활동 1 후프를 이용한 움직임을 연결하여 표현하기 ○ 후프를 이용한 움직임을 연결하는 방법을 탐구하여 표현 활동하기 • 후프를 이용한 선생님의 표현을 보고 다음 동작을 연결하는 방법을 탐구하여 표현 활동을 해 봅시다. - 흔들기 - 돌리기 - 굴리기 - 던지고 받기	10'	⊕ 자유롭게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자 탐구한 연결 동작을 표현한다. ⊕ 후프를 돌릴 때에는 손끝이 아닌 손바닥으로 돌린다.

나. 학습 동기유발 자료는 교사가 직접 후프 체조 시범 보이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재미있는 체육과 탐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가 직접 음악(금속의 물레방아)에 맞추어 후프를 이용한 체조 모습을 보여주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문제를 찾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탐구 문제 설정에서 작품 발표 및 감상까지는

탐구 문제 설정에서는 후프를 이용한 움직임을 연결하는 방법을 탐구하여 표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후프를 이용한 동작을 표현하면 모둠별로 학생들이 연결 동작을 탐구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탐구 계획 수립 및 탐구 활동 전개에서는 모둠별로 음악(노래)을 선정하고, 음악(노래)에 어울리는 후프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본 움직임을 토의를 통해 정한 후 직접 노래를 부르며 후프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본 움직임을 연결하는 탐구 과정을 거쳐 다양한 움직임을 모둠별로 꾸며 노래 부르며 표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귀간 순시를 통해 후프를 이용한 첫 인사법, 표현 활동 전개, 끝 인사 활동을 도와주어 후프의 특성을 살려 표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둠별로 원을 만들어 앉아 웃으면서 즐겁게 의논하고, 후프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본 움직임을 서서 연습하는 과정은 예술가가 된 표현 활동 그 자체였다. ‘와!’ 하며 친구들이 소리내어 감탄하고, 박수를 많이 쳐 주었던 4모둠, 꿈이 피아니스트인 명준이는 피아노를 치고, 표현 활동을 좋아하는 유진이가 친구들의 동작을 도와주어 멋진 후프 체조 작품을 선보인 그 날에 우리 모두는 즐거웠다. 우리도 올림픽 때 보았던 후프 체조 선수가 된 듯이.....



작품 발표 및 감상에서는 모둠별로 연습한 후프 체조를 체육관의 무대 위에서 발표하고 감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를 볼 때는 심사 기준에 의해 모둠별로 심사위원들이 ‘리듬 표현상’을 줄 친구나 모듬을 생각하면서 감상하도록 후프 체조 심사표를 활용하였다. 또한 심사표를 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하여 잘한 점, 부족한 점, 노력할 점 등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하며, 리듬 표현상을 전달하였다. 특히 오늘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점, 즐거웠던 점, 어려웠던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발표 할 때는 우아한 후프 체조 한 동작을 선보이며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하는 성염이의 웃는 모습이 공부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정리 체조는 우리가 체육 시간이면 매일하는 ‘공부 잘하는 체조(아기 염소 노래에 맞추어 만든 체조)’를 음악에 맞추어 하면서 오늘 많이 움직인 관절, 근육을 풀어 주었다.

차시 예고, 과제 제시에서는 교사가 직접 리본 체조 동작을 보여주어 다음 시간에도 학생

들이 공부하고 싶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우와! 하며 함성이 나옴), 수준별 과제 제시는 가족 앞에서 자기 모둠에서 발표한 후프 체조를 발표하거나, 후프 체조를 발표한 소감을 학습 일기쓰기·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제시하여 자기가 해결 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해서 해결해 오도록 하였다.

2. ‘후프 체조’를 만들어 신체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중점 활동 가. 후프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본 움직임 익히기

1) 후프를 바닥에 세우고, 손목의 힘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돌리기	5) 발목에 걸쳐 돌리기 6) 높게, 낮게 던지기 7) 후프를 뉘어서 던지고 받기	10) 후프 통과하여 뛰어넘기 11) 앞으로 던져 역회전하기 12) 손바닥에서 돌리기 13) 손목에 걸쳐 돌리기
2) 머리 위에서 손으로 돌리기	8) 좌우로 흔들기	14) 대형 변화 주기(원, 2열, 이중 원 등)
3) 허리에 걸쳐 돌리기	9) 상하로 흔들기	
4) 목에 걸쳐 돌리기		

나. 모둠 토의 활동으로 ‘후프 체조’ 만들어 연습하기

- 1) 이꿈이를 중심으로 모둠 원을 만들어 앉아 4학년 교육과정에 나오는 음악(노래)을 정해 친구들과 손뼉 치며 불러보고, 음악(노래)에 어울리는 후프를 이용한 기본 움직임을 연결하는 연습하기
- 2) ‘후프 체조’ 첫인사, ‘후프 체조’ 발표하기, ‘후프 체조’ 끝 인사하며 마무리 연습하기
- 3) 모둠의 협동성, 창의성, 협력성을 나타내는 의상도 고려해 보기

다. 모둠별 ‘후프 체조’ 발표는 예술가가 되어 자신 있게!

- 1) 표현 활동 시간이면 음악(노래)에 어울리는 표현 작품을 만들어 연습하고 1·2차의 수정 과정을 거쳐 체육관 무대 위에서 발표하기의 생활화로 자신감 키우기
- 2) 친구들의 표현 작품을 감상하고 잘된 점을 공유해 다음 작품 활동에 재구성, 재접목의 기회 제공하기

3. 이렇게 커가는 우리 대청의 꿈나무들

교문에서부터 달려와 반갑게 인사하는 키가 큰 경은이는 나와 눈을 맞추며 “선생님, 후프를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후프 체조를 만들어 발표해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만 후프 체조를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참 좋아요.”하며 의젓한 귀여움을 뽐낸다.

도전·경쟁 활동만 좋아하던 예찬이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후프 체조를 친구들과 직접 의논해서 만들고, 무대 위에서 발표까지 하게 되니 이제는 모든 체육 활동에 자신감이 생기고 즐겁다.”며 심긱이 웃어준다.

“그래, 그렇게 커 가자. 행복한 얼굴 그 자체로.” 선생님이 도와줄게.

마인드맵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심 수 미
창원 신월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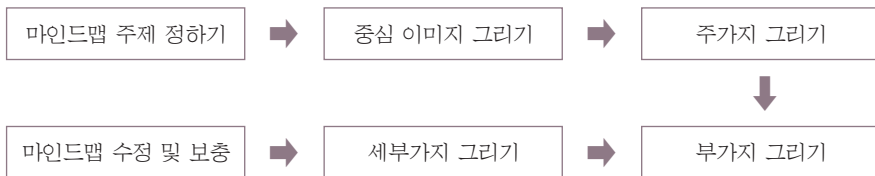
결과 중심의 쓰기에 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학생들의 개인차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과정 중심의 쓰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과정 중심의 쓰기 단계를 전-쓰기, 초고쓰기, 교정(revision)으로 나누어 볼 때 초고를 쓰기 전인 전-쓰기 단계에서는 쓰고자 하는 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 개성이 없고 빈약한 내용의 단순한 글쓰기가 되기 쉽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쓰기 수업의 전-쓰기 단계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마인드맵 기법과 이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마인드맵이란?

마인드맵은 영국의 토니 부잔(Tony Buzan)에 의해 창시된 학습이론으로 자신의 생각을 지도 그리듯 이미지화해 방사형으로 정리하는 학습방법이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좌뇌와 우뇌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고 두뇌의 방사사고 조직화와 연상결합을 통하여 무한한 창의력을 쏟아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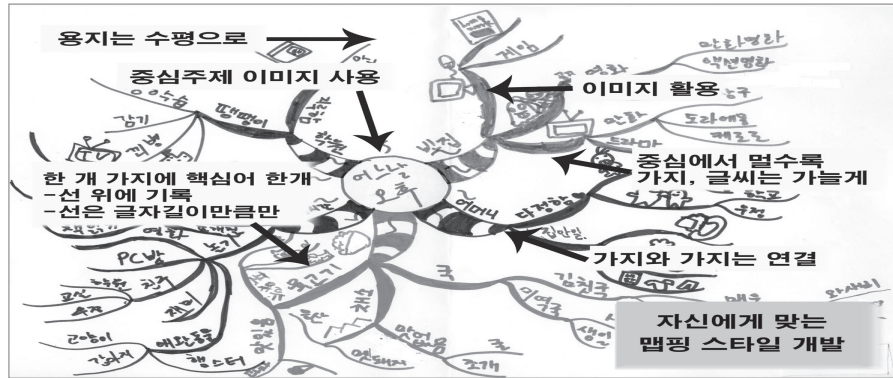
2. 마인드맵 작성 순서

마인드맵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중심주제로부터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미지나 핵심어로 기록한다.



3. 마인드맵의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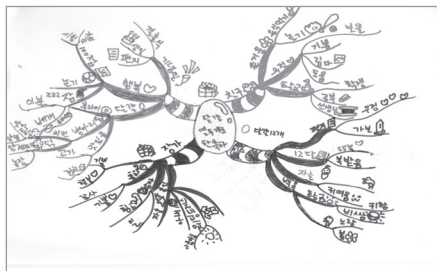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마인드맵을 작성하는데 지켜야 할 원칙을 이해하고 숙달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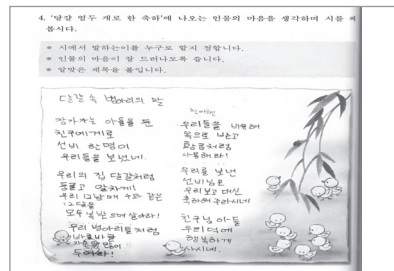
4. 쓰기 수업의 전-쓰기 단계에 마인드맵을 활용한 수업 사례

- 교과 및 단원 : 국어(6학년 2학기), 셋째마당 2. 향기로운 이야기(4/9차시)
- 학습주제 : 이야기 듣고 인물의 생각을 시로 표현하기

전-쓰기 단계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기의 내용, 인물의 생각 및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마인드맵으로 마음껏 펼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갈래의 글인 시로 바꾸어 쓰는 초고쓰기를 하였다.



이야기 듣고 마인드맵하기



이야기를 시로 바꾸어 쓰기

전-쓰기 단계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하는 마인드맵 작성을 통하여 학생들이 글쓰기 활동에 보다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고, 작성한 마인드맵을 과정 중심 글쓰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내용이 풍부하고 개성 넘치는 창의적 글쓰기가 이루어졌다.

교 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 글 쓰는 순서**
- ① 학년말 업무
 - ② 학년 초 업무 계획
 - ③ 업무결재 관련
 - ④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방안
 - ⑤ 출결 및 전출입
 - ⑥ 수행평가 및 성적처리
 - ⑦ 학적관리(유예, 면제, 정원외)
 - ⑧ 유학생 학적관리
 - ⑨ 각종 누가 기록 관리
 - ⑩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 ✓ ⑪ 차세대 교무업무시스템

활용 차세대 교무업무시스템 NEIS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재의 마지막으로 2011학년도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선보이게 되는 차세대 나이스(교무업무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 ‘차세대 나이스’란?

2002년 구축되어 운영 중인 나이스 장비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2011년 3월 개통을 목표로 나이스(일반·학교행정, 교무업무), 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전자문서포함) 등의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Green IT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KERIS 주관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핵심 따라잡기] 교과부, 차세대 나이스(NEIS) 구축 사업

- 현행 단독 또는 그룹 서버로 운영되는 3,600여 대 서버를 2011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비 대폭 절감
- 재학생에게도 성적, 봉사활동 실적 등 자기정보 열람서비스 제공
- 한 번의 로그인으로 나이스, 에듀파인, 전자문서시스템에 접근하는 업무 포털사이트 운영

■ ‘차세대 나이스’의 특징은?

▶ 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한 운영 인프라 통합

- 3,600여 대 학교별 교무업무 서버를 학교급별로 통합 구축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며 연간 31억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업무프로그램 개발

- 나이스, 에듀파인, 전자문서시스템 등의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해 한 번 로그인(SSO)으로 사용자, 조직, 코드 등 공통정보 관리를 단일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과교실제, 입학사정관제, 교육복지 등의 교육정책 지원 및 교과부, 타 부처/기관, 시·도교육청 등으로 부터의 추가개발 및 기능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최신 정보보호기술 적용으로 강화된 7단계 보안체계 구축

- 사이버안전센터를 연계하여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 조기대응체계를 조성합니다.
- DB접근 통제 및 개인정보 취급기록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 ※ 강화부분 : DDos 방어, 통합인증권한관리(EAM), 웹DRM, DB접근 통제 강화 등
 - ※ 7단계 보안체계 : 1단계 PC방화벽 → 2단계 데이터 통신 암호화 → 3단계 침입차단시스템 → 4단계 침입방지시스템 → 5단계 전자인증체계(PKI) → 6단계 서버보안시스템 → 7단계 DB 암호화

▶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 학생, 학부모, 졸업생 등 수요자 계층을 고려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고, 전용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 재학생 자기정보 열람서비스, 입(진)학 정보 지원, 통합접속창구 제공 등
- 다양한 인증방식과 대국민 포털사이트 제공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 ※ 휴대폰 인증, USB 토큰 인증 방식 등 인증방식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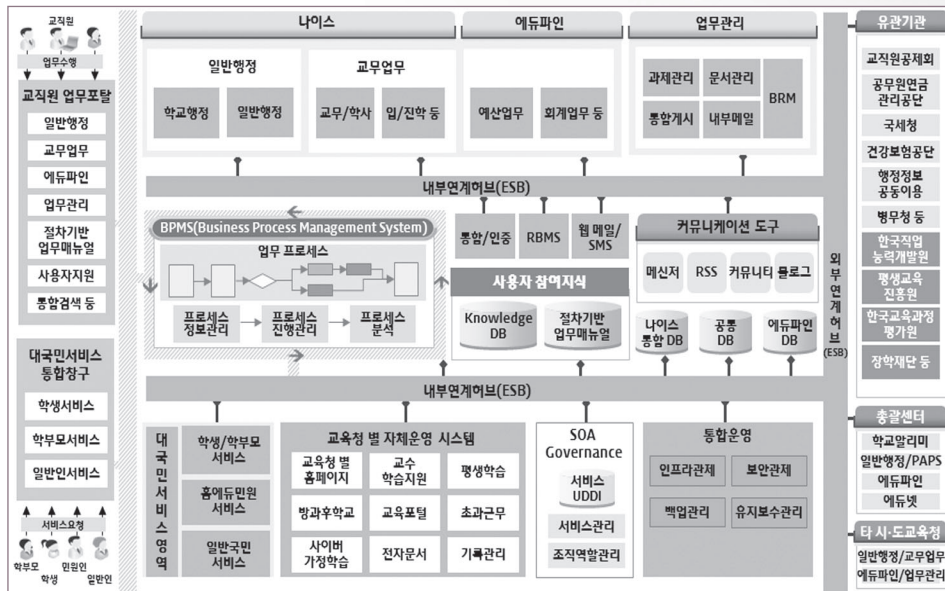
■ ‘차세대 나이스’ 운영 업무는?

영역	업무명
교무행정(15)	입(진)학, 학적, 학생부, 학생생활, 방과후학교, 성적, 교육과정, 학교정보, 장학, 대입전형, 체육, PAPS, 보건, 급식, 학교환경관리
일반행정(12)	교원인사, 일반직인사, 비공무원인사, 직장민방위, 감사, 검정고시, 시스템관리, 시설, 국공립급여, 사립급여, 법인, 평생교육
서비스(7)	통계, 민원, 학부모서비스, 학생서비스, 홈에듀민원서비스, 학교정보공시, 대국민서비스
업무포털(2)	대국민서비스총괄, 업무포털

■ ‘차세대 나이스’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는?

차세대 나이스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일선 현장에서 요구되었던 사용자 편의성의 향상과 함께 교사의 업무경감이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며, 아울러 대국민서비스 전용 인프라 구축으로 학생, 학부모, 졸업생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세대 나이스 연계 교육정보통합시스템 체계도



삼동초,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이혜진

남해 삼동초등학교 교사

삼동초등학교(교장 박광옥)는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술꽃 씨앗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소외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연간 1억원씩 4년간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동아리 운영을 통해 평생토록 문화예술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본교의 예술꽃 씨앗학교 프로그램은 챔버오케스트라, 국악합주부(가야금, 소금), 스쿨밴드, 타악 퍼포먼스부, 미술부, 무용부, 어린이 뮤지컬부 등의 학생 동아리와 지역민을 위한 성인 가야금 병창부, 본교 교직원을 위한 교직원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다.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본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는 데 제약이 있었으나 2010년 들어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알리고, 이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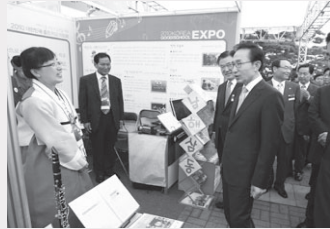
1.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를 빛낸다

본교는 지난 10월 8일~10일까지 서울 KBS 시청자 광장에서 개최된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KBS1 TV 특별 생방송을 통해 전교생은 76명에 불과하지만, 학력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학교로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VIP리셉션장에서 박람회 참가학교를 대표하여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침으로써 작은 학교에서도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박람회 이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한국판 엘 시스템아'의 전형으로 본교의 예를 들며 전국 100개 초·중학교에 1억원씩을 지원하여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해의 소규모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전국을 향해 뻗어가고 있는 것이다.

2. 제3회 예술꽃 씨앗학교 발표 및 삼동 어울림 한마당

2008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술꽃 씨앗학교 발표 및 삼동 어울림 한마당'이 오는 11월 30일에 남해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0 교육활동 모습소개를 시작으로 각 동아리가 1년간 갈고 닦은 것을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01



02



03



01 전시부스

02 리셉션장 공연

03 공연

‘예술꽃 씨앗학교 발표 및 삼동 어울림 한마당’은 학교만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의 축제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학생, 학부모, 지역민 및 교사가 모두 함께 연습하고 준비하는 축제는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2010 경남 교육 박람회 참가

본교는 On-line과 Off-line을 통해 개최되는 2010 경남교육박람회 참가학교로 선정되어 준비에 한창이다. 창원 CECO에서 12월 2일~5일까지 4일간 개최될 박람회에서 전시부스를 운영하고, 경상남도 남해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가야금 병창부가 공연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본교의 교육활동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박람회에서는 예술꽃 씨앗학교 프로그램과 2009학년도에 EBS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다.



04

4. 2010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참가

오는 12월 4일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2010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 및 기관, 예술꽃 씨앗학교 등이 모두 참여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본교는 이 축제에서 예술꽃 씨앗학교의 사례발표와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워크숍에 참여하여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어 놓을 계획이다.



05

5. 전국에 피어날 예술꽃을 꿈꾸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초교육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모든 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또한 학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고,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공교육 속에 녹아들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이뤄지길 바란다.



06

- 04 공연
- 05 가야금
- 06 오케스트라

교육공동체 모두가 즐거워하는 골프교실



고 학 병

창원 용원초등학교 교장

창원시 진해구 제일 끝자락으로 들어와 보면 작지만 따뜻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작은 도시 용원이 보인다. 울창한 아파트 빌딩 숲을 지나오면 조용하고도 평온한 바닷가 정취가 물씬 풍기는 용원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 160여 명의 꿈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작은 학교에서 큰 꿈을 펼치며 지혜와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지역이 점점 도시화 되어가고, 아파트에 둘러싸여 거대하게 몸집을 키워가는 주위 학교 대신 여기 용원초등학교는 시골스런 정이 넘쳐나고 학교에서의 배움을 소중하게 여기는 따뜻한 학생들로 알콩달콩 지내는 꿈의 요람이라 말하고 싶다.

본디 규모가 큰 학교에서 시작하여 점점 학급수가 줄어들어 이전 6학급이 되어버린 이 곳은 학교 구석구석 빈공간이 넘쳐나 방과후 수업 공간, 학력향상 지도 공간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학교 급식소를 이전하므로 아주 큰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곳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칠 좋은 활동이 없을까 하여 모든 교직원이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인근의 큰 학교에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본교의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찾던 중 골프 교실을 열어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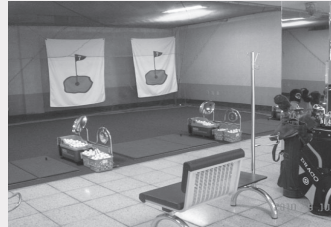
❶ 골프교실 열다

우리 학생들의 특기 및 적성을 개발하며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골프 연습장을 신축하고자 결정하고 난 후 모든 교직원들은 분주해졌다. 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세운다는 것이 생소하게만 느껴졌고 어떤 시설로 어떻게 운영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고민하며 뜨겁던 여름방학 동안 여러 학교를 탐방해가며 생각들을 정리해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급식실로 이용되던 장소를 리모델링하고 5개의 타석과 1개의 퍼팅 연습장을 구비했으며, 방과후 수강 아동들을 위한 30개의 어린이용 골프 연습채 외 장갑, 교직원 연수용 골프 연습채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기다리던 2학기 개학을 시작으로 창원 교육 지원청 관계자, 시의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방과후학교 ‘어린이 골프 교실’ 개강식을 열었다.

❷ 체계적인 교육, 방과후 골프교실

골프 수업에 앞서 골프 교실을 운영할 골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홍보하고 수강신청을 받은 결과 생각보다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문의를 받으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01



02



03



01 용원 골프연습실 모습

02 골프교실 개강식

03 골프 체험수업

어린이 골프는 집중력을 길러주고 전신운동 효과가 있으며, 사회성과 독립성도 기를 수 있는 종목이다.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스윙은 ‘쇼트 스윙’인데 이를 통해 팔과 몸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가며 몸의 근력을 서서히 키울 수 있다. 또한 골프는 운동장을 누벼야 하는 축구나 농구보다 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면 어린이 체력에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주 2회 방과후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① 골프와 자연스러운 친구 되기

방과후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 내 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요일마다 학년별로 골프체험수업을 계획하고 골프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교사의 지도로 골프를 체험해보고 있다. 실제로 골프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선 골프장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숏게임을 즐기지만 스윙은 제 멋대로라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스윙 폼부터 배우지 않고, 그저 구멍에 볼을 넣는 놀이를 함으로써 골프의 재미를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학교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골프를 놀이로 알고 골프와 자연스러운 친구되기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과 같다고 본다.

① 배우고 가르치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하는 교사들을 위해 교사 연수의 기회로 골프강좌를 열고 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골프와 친구가 되기 위해선 먼저 교사들이 골프와 친해져야함을 느끼고 바쁜 연수시간을 쪼개어 골프 수업을 받는 교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골프용어, 자세, 규칙 등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가르치기에 앞서 성실하게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연찬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사제(師弟)의 아름다운 모습을 낳고 있다.

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교육

골프가 점점 대중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안으로 골프교실을 가져와 학생과 교사들에게 좋은 경험의 장이 되고 있지만 본교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 이 시설을 나누고 싶어 골프연습장을 개방하고 있다. 골프라는 스포츠를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건이 되지 않는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매일 방과후 1시간 30분씩 골프연습장을 무료 개방하여 마음껏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였다.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골프는 어렵고 멀기만 한 운동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산책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접해볼 수 있는 친숙한 운동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04



05



06

- 04 교사연수
- 05 골프 체험수업
- 06 방과후 골프교실 수강생 모습

국제화 · 세계화 시대의 주역이 될 글로벌 인재 만들기



이 호 철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

한민족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바탕 위에 국제적인 경쟁력과 감각을 겸비한 더불어 사는 덕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이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서고자 본교에서는 2002년을 첫 시작으로 벌써 8년째 일본 아이찌교육대학교 나고야 소학교와의 국제교류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반성, 화해, 미래를 위한 각종 교류를 통해 우호친선관계로 발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문화’라는 힘으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우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문화적 교류가 양국 간의 우애를 더욱더 증진시켜 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임은 확신한다. 이에 본교는 교류학생간의 홈스테이를 통한 ‘일상생활 문화 알기’와 학교방문을 통한 ‘교육문화 알기’ 등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에게 글로벌 인재로서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경험이 되리라 기대하며 지난 2010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의 국제교류 행사를 추진하였다.

공항에서의 첫 만남은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짧은 일본어로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진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결정적인 이야기거리가 생겼다. 인솔교사 중 한 명이 자신의 가방에서 한국드라마 ‘이산’의 대본이 일본어로 적힌 책자를 보여주자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자기 가방에 달린 일본 인기 만화 캐릭터 열쇠고리를 보여주었고 이로써 서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일본은 ‘17세기 열렬한 조선 붐을 만들었던 조선통신사 이후 최대의 한국 붐’이라는 NHK서울지국장 출신인 하라다 요시쓰구(原田 勇嗣) 일본 중의원의 말처럼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의 문화가 매우 긍정적 영향으로 퍼져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너무나 기분 좋은 시작이었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이 지난 60년간 부정적으로 고착되어왔던 한·일 두 나라의 상대방 이해에 새로운 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본교도 그에 발맞추어 가고 있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가슴 뿌듯한 첫날 이었다. 그들을 진주의 한 호텔로 안내해 주고 첫날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였다.

01



02



01 환영행사

02 민속놀이체험

나고야소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언어의 장벽을 걱정하면서도 홈스테이 결연 한국학생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동경하는 한국 걸그룹이나 보아 같은 스타들이 살고 있는 나라! 그들에 대한 호감과 동경이 한국에 대한 호감과 동경으로 이어져 한국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의 태도와 모습이 그들에게 만족스러울까라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도 잠시 우리는 이내 곧 편안함과 친근감으로 하나 되고 있었다. 둘째 날은 본교에서의 환영 행사와 학교문화 체험이 있는 날이다. 본교 김점권 교장선생님 그리고 전교 학생회장의 따뜻한 환영사를 시작으로 환영행사가 순조롭게 펼쳐졌다. 양가 교가 제창 순서에서 본교의 관악부 단원이 나고야 소학교의 교가를 연주해주자 일본 학생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어 본교 풍물부, 합창부, 관악부가 그 솜씨를 한껏 뽐내자 감탄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본교 학교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고 각 교실과 특별실을 둘러보며 한국의 선진화된 교육 환경, 시설에 많이 놀라워하였으며 체육관에서 본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마당에서는 호기심과 신남의 모습이 역력했다. 점심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진주시 인근의 청동기 박물관, 목화시배지를 둘러보았다. 한국의 청명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 훌륭한 도예 솜씨를 만끽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국제교류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통한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이 시작되었다. 타국에서의 낯선 잠자리가 다소 걱정이 되는 듯 긴장된 표정이 살짝엿 보였지만 홈스테이를 하게 될 가정의 어머니들의 따뜻함에 곧 평안을 찾는 듯 보였다. 그 날 저녁 일본 학생은 교류학생의 부모님과 함께 간단히 시내를 구경하고 한국의 가정생활 문화를 접하였다. 같은 시간 일본의 인솔 교사들은 본교 몇 분의 선생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다. 학생지도, 학교풍토, 교육현안, 교육정책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교류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정답게 손을 잡고 등교를 하였다.

“선생님, 사카이 히메미를 데리고 진주성에 들러 국립민속박물관을 견학하였는데 너무 신기해 하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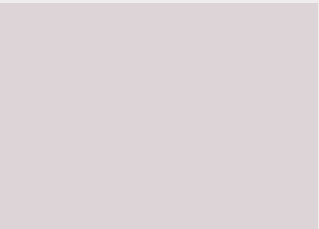
“사토 시오리는 저희 어머니가 해 주신 된장찌개와 김을 너무 잘 먹던걸요.”

“저희는 밤 새워 이야기 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몸으로 대화를 더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인가 봐요. 언제 보았다고 금새 친해져서는 밤새 잠도 킁득거리며 어찌나 말이 많던지…… 금새 저리 친해졌답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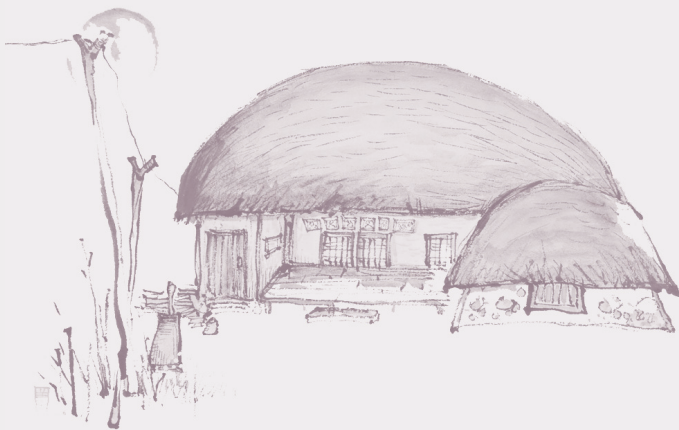
04

03 청동기박물관 견학

04 기념촬영

헤어지는 날, 두 학생 간의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아쉬움과 포옹을 보며 어른들은 신기하기만 하였다. 교사들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환송자리에서 다음 만남을 진한 악수와 밝은 표정으로 기약하였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두 학교 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던 일정이었다. 일본 학생들이 다녀 간 뒤, 본교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의 생활방식, 관심분야, 예절 등에 대해 많은 점을 알게 되고 느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번 경험을 통하여 본교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이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학생들을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 자라나게 할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며 기분 좋게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다가오는 겨울, 손님에 대한 예의가 남다른 일본 방문을 통하여 그들의 장점을 배워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하며 다음 방일 만남을 기대해 본다.



대양에서 커가는 미래의 핵심인재 -대양초등학교 사물놀이반-



송 치 욱
합천 대양초등학교 교사

대양초등학교(교장 김명자) 사물놀이반은 전교생 22명 모두가 함께 한다. 사물놀이란 북, 쟁과리, 징, 장구가 서로 호흡을 맞추어 장단을 구성해나가는 전통 예술이다. 보통 삼도농악을 기준한다면 연주시간이 15분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 체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때문에 초등 1,2학년 아동이 사물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농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수 부족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큰 학교의 30~35명으로 구성된 사물놀이반의 소리에 맞추기에는 모자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설령, 북을 잡더라도 고학년이 북채를 잡는 것과 1,2학년이 북채를 잡고 칠 때와는 북의 울림과 진동 차이가 많다.

그러나 반전하여, 이러한 부족함과 아쉬운 조건이 오히려 전체를 움직이는 Energy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교생이 한팀으로 호흡을 맞춘다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 사물놀이는 시작이 4명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5배나 많은 22명의 아동들이 있다.

물론,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만 긴 여정에 있어 어찌 고달픔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라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면서 교육자 즉, 교사 아닌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나를 위해서? 아니다. 누구? 그렇다. 대양초등학교의 전교생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망설일 필요없다. 한번 해보자였다.

사물놀이반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가졌던 법칙은 정석(定石)의 원칙이었다. 외부 강사분의 수업이 끝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습이었다.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기본 가락과 장단을 가르쳐 주면서 무한반복의 과정을 거치는 코스였다.

매우 단조롭고 지루한, 마치 군생활 당시 천 리를 걸어가는 천 리 행군 때보다 더 지겨운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연습방식은 오히려 조기교육(?)의 효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1, 2학년때 북을 치다가 3학년때 징, 4학년때 장구나 쟁과리를 잡게 되니 매우 체계적인 음악수업이 되어갔다.



01

01 제1회 합천군 초등학교
사물놀이 경연대회

급조된 실력이 아닌 느리면서도 음감을 갖추어가는 연주 실력을 쌓아감으로 인해 적은 인원의 사물놀이부지만 사물을 다루는 개인기와 팀 조화는 최고 수준이 될 수가 있었다. 학교 정규수업을 마치면 사물놀이반에서 연습을 해오다 보니 특정 대회가 있어도 따로 연습 시간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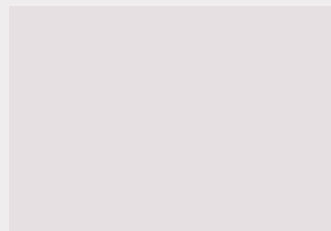
사물놀이반의 이러한 애씀과 화합의 결과는 2010년 10월 09일 제26회 대야문화제 합천군 초등학교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6일(토)에는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장 허남식)가 개최하는 제1회 세계무예대회(명예위원장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대회장 농림수산부장관 유정복) 개막식에 초청을 받아 개막식 축하 공연을 하기도 했다.

교장선생님은 종종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음의 흐트러짐을 잡아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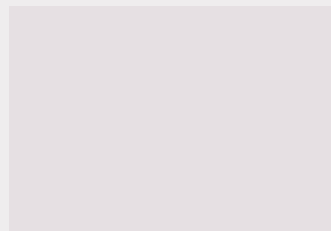
“우리학교가 교육적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물놀이 교육이 다소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학생을 위해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나날이 새로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

교실의 아동을 한번 더 바라보세요. 그리고 학교 어른들께 좋은 말씀을 청하여 보세요. 왜냐구요? 그 속에 삶의 지혜와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Right Now!!



02



02 제1회 한국전통무예 세계대회 초청공연

화개골의 힘찬 디딤, 벚꽃 누리 배움터 -떠나는 농촌학교에서 돌아오는 농촌학교로-



김 영 수

하동 화개중학교 교감



01

일찌기 가수 조영남씨가 불러 히트한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화개장터’, ‘왕의 녹차·전국 최고의 야생 녹차 단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십 리 벚꽃길’로 유명한 하동군 화개면에 소재하고 있는, 22명의 교직원이 6학급 112명의 재학생과 더불어 ‘떠나는 농촌학교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학교’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화개중학교(교장 김남일)는 학부모·교사·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돌아오는 학교·머물고 싶은 학교·자랑스런 학교’가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02

벚꽃 누리 화개골 배움터의 힘찬 디딤을 서두르며

우리학교 학생의 약 1/3이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다. 그동안 교장선생님 이하 본교 선생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그들에게 뭔가 다방면의 문화적 혜택과 안정적인 생활 및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희생을 감내하며 노력한 결과, 드디어 교과부로부터 ‘전원학교’로 선정되어 실제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 행운의 기회를 맞이하여 전교직원이 열싸안고 기쁨을 나누었다.

전형적인 농촌학교이면서 주변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었던 우리 학교, ‘화개골 배움터 운누리에 희망의 벚꽃이 제대로 피기 시작한다’고 감사하며, 교무회의에서 ‘전원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화개골 배움터의 웅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며 힘찬 디딤을 서두르게 되었다.



03

벚꽃 누리 전원학교

우리학교 울타리 너머 쌍계사 가는 십 리 벚꽃길에서 꿈을 키워온 본교 학생들이 천혜의 자연조건인 벚꽃이 만발한 운누리 속에서 마음껏 교육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전원학교 명칭을 ‘벚꽃 누리 전원학교’로 정하게 되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전원학교의 대표적인 실천과제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특색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력향상, 소질계발, 평생교육, 학습방 프로그램 등이 있고, 특색 프로그램으로는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연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일정은 총 4기로 나누어, 제1기(1학기), 제2기(여름방학)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 01. TPC활용수업
- 02. 전자교탁활용수업
- 03. 야간학습방

하고 제3기(2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4기(겨울방학)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명실 공히 희망을 키우는 전원학교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자위해 본다.

◆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내용

1학기에는 학력향상 프로그램 교과 강좌 6개 반이 주 4일, 오전 08:25부터 09:10까지 1시간, 오후 03:35부터 05:15까지 2시간씩, 1일 3시간 운영되었고, 소질계발 프로그램 특기·적성 강좌 12개 반이 매주 수요일 오전 08:25부터 09:10까지 1시간, 오후 03:35부터 05:15까지 2시간씩, 1일 3시간 운영되었으며,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4개 반은 주 2일 저녁 07:00부터 09:00까지 운영되었고, 야간 학습방 프로그램 1개 반은 학교에서 저녁식사를 제공한 후, 매일 오후 06:00부터 09:00까지 운영되었다. 또한 여름방학 중에는 학력향상 프로그램 교과 강좌 6개 반이 주5일 평일 09:00부터 12:30까지 운영되었고, 오후 02:00부터 05:30까지 학습방 프로그램 1개 반이 운영되었다. 그리고 2학기 방과후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도 1학기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 특색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내용

우리학교와 같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결여되기 쉬운, 참다운 인성 및 창의성 함양 체험학습과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도시 학생들과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주며 올곧은 인성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체험학습 및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운영 내용

활동명	대상	실행시기	장소	구분
스페이스캠프	우주소녀단	2010.01.04~01.06	전남 영암 외나루도	체험학습
스케이트캠프	3학년	2010.01.09	전남 광양 빙상장	"
스키캠프	전교생	2010.01.11~01.12	전북 무주리조트	"
다도문화익히기	3학년	2010.09.18	하동 녹차문화센터	"
전국체전관람	전교생	2010.10.11	진주 종합경기장	"
뮤지컬공연관람	전교생	2010.10.16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
선진지견학	전교생	2010.11.08~11.06	서울대, 국회의사당, 한국우주항공연구원 등	"
문화유적지탐방	3학년	2010.11.19	쌍계사, 최참판댁 등	"
왕의녹차만들기반	2학년	매월 1, 3주 토요일	하동 녹차문화센터	동아리활동
녹차생활용품만들기반	1학년	" , 2010.10.16	가사실, 녹차문화센터	"
도자기만들기반	3학년	" , 2010.11.06	진교 도자기마을	"
텃밭가꾸기반	4-H반원	매월 1, 3주 토요일	자연체험학습장	"
과학영재반	과학영재	매월 1, 3주 토요일	과학실, 가사실	"



03 왕의녹차만들기(녹차문화센터)
 04 녹차생활용품만들기
 05 과학영재반

벚꽃 누리 전원학교 운영 특성

- 방과 후에도 교내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하는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별 (디딤,오름반) 맞춤형 교과 강좌인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전교생 참여)
- 오지의 시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유능한 강사를 어렵게 초빙하여 특기·적성의 발견과 창의성 함양에 앞장서는 소질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매일 평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요일별 관리교사의 지도아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 빛나는 야간 학습방을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내실화하고 있다.
- 복지교육의 실현과 야간 학습방 운영을 위한 질 좋은 저녁 만찬을 제공하고 있다.
- 야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교육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 학부모에게 SMS(휴대폰문자서비스)로 학습상태, 생활태도 등을 알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 각 반별 전자교탁, 전자칠판 설치 및 전교생 개인별 TPC 지급 등, 첨단 교육기자를 갖춘 e-learning 및 u-learning 학습의 정착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랑은 이유를 묻지 않으니

사랑은 이유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도 후회 모자라지 않나 걱정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이유를 묻지 않는 사랑을 주고도 모자람이 없는지 걱정하는 끊임없는 제자사랑과 희생’만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시린 겨울이 지나 따사로운 봄이 오면, 우리학교 담장 너머 십 리 벚꽃길 온누리에 활짝 필, 벚꽃을 닮은 화개골 아이들! 눈이 시리도록 예쁜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 사랑의 ♥를 살포시 그려놓고, 그들과 함께 힘찬 디딤의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도 밤10시! 이 부족한 교감은 교실 문단속을 하고 세이움을 걸면서 아쉬운 하루를 조용히 내린다.



07



08



09

07 스키캠프(무주리조트)

08 다른문화익히기(녹차문화센터)

09 뮤지컬관람(경남문화예술회관)

2011.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거제 계룡중 '예술(음악)중점학교' 선정! 음악이 너무 좋아요



정 윤 호
거제 계룡중학교 교사

1. 왜! 음악중점학교인가?

일반 중학생 중 예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술(음악) 중점학교를 설치하고,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전국에서 8개 중학교가 선정됨

-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조기교육과 특성화 교육의 수요를 만족시킴
- ♫ 양질의 음악교육을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나아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
- ♫ 잠재해 있는 예술적인 소질을 조기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예술교육의 기반 강화

2. 어떻게 지원하는가?

- 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 2011년 3월 부터 5년간 지원(2011년~2015년)
 - ▶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금 : 초기 2억원 지원(교구비/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5천만원)
- 나. 경상남도교육청 지원금 : 2억원 지원(시설비 또는 교구비)

3. 어떻게 구성하는가?

- 가. 학급 구성 : 음악반 1학급(30명)
- 나. 교사 배치 : 본교 음악교사 3명+1~2명 추가 배치(예정), 합주 및 서양 악기, 우리나라 악기별 전공 강사, 유리드믹스(Eurythmics) 등 새롭고 창의적인 현대 음악교육 전문가의 강사 임용 예정(학생들의 전공희망에 따라 강사 임용)
- 다. 학생 모집 단위 : 광역 단위 모집(경남 전 지역)
- 라. 신입생 모집 : 선 지원 후 추첨·배정
 -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일반 중학교 배정 추첨 시기보다 앞서 모집 (2010.10.26(수)~11.3(수) 17:00까지)
 - 2) 선발 방법 : 공개 추첨으로 선발
 - * 전형위원회는 학교 예술 담당교원,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
 - 3) 공개 추첨 실시 : 2010년 11월 4일(수) ~ 30명 선발(남 4명, 여 26명)

01



02



4. 무엇을 배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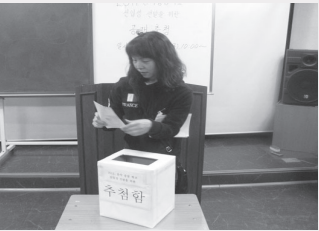
가. 교육과정 목표

다양한 악곡과 심화된 음악 경험을 통하여 미적 체험과 음악적 소양을 넓히고, 음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며, 음악 개념 습득과 원리의 이해를 통해 음악적 사고력을 기른다.

- 1)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해 미적 체험과 음악적 소양을 넓힌다.
- 2) 기본적인 음악의 특징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표현하게 한다.
- 3) 음악 지식을 습득하고 음악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

나. 기본 시수 : 정규 교육과정에서 24%(주당 8시간)까지 확대하여 음악시간 운영다.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 1) 1학년 : 음악 이론 및 실기에 대한 기초이론 학습
- 2) 2학년 : 음악 이론 및 실기에 대한 심화 학습
- 3) 3학년 : 음악 이론 및 실기에 대한 심화 학습



구 분		1 ~ 3학년	
		일반 중학교 교육과정	예술 중점과정
교과 (군)	국어	442	354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408
	수학	374	299
	과학/기술가정	646	517
	체육	272	217
	예술(음악)	272	830
	영어	340	272
	선택 과목	204	163
창의적 체험활동		306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3,366

- ① 총 수업 시간수는 3년 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② 음악중점학교 해당 분야의 교과는 전체 3,366시간 중 최대 830시간(24%)을 중점 과목으로 구분, '공통 필수'와 '공통 선택'으로 과목 영역을 나누어 중점과정 대상 학생에게 적용한다.
- ③ 해당 분야 교과의 중점 과목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제한하는 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라. 학교별로 선택한 분야 가운데 학생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 분야로 나누어 운영 가능

교과	과목 영역		과 목 명			
	음악	필수과목	실기	기초피아노 실기	전공 실기	창의적 표현
이론			음악기초이론	음악 감상	음악사	Solfège
	선택과목		컴퓨터 음악	우리나라 음악감상	즉흥연주	실내악

- 1) 예술(음악/미술/공연)은 음악과 미술, 공연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 2) 선택과목은 예술에 관한 과목을 우선 개설하여 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마. 음악 각 분야의 저명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음악회 개최(연 2회) : 연간 음악중점학교 Program 운영비 확보(1억원)

바. 중점교과의 경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일반교과와 통합과정 마련

사. 음악중점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예시안)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별 시수	교과별 시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 어		68	68	58	58	51	51	354	354	
사회/ 도덕	도덕			51	51			102	408	
	사회					68	68	136		
	역사	34	34	51	51			170		
수학		50	49	50	50	50	50	299	299	
과학/ 기·가	과학	102	102			88	89	381	517	
	기술·가정			68	68			136		
체육		40	41	34	34	34	34	217	217	
예 술	음 악	기초피아노 실기	17	17	17	17	17	17	102	830
		전공 실기	23	23	34	34	34	34	182	
		창의적 표현	17	17					34	
		합창·합주			17	17	17	17	68	
		음악기초이론	34	34					68	
		음악 감상	17	17					34	
		음악사			20	21	15	14	70	
		솔페지	17	17			17	17	68	
		컴퓨터 음악					17	17	34	
		우리나라 음악 감상			17	17			34	
		즉흥 연주	17	17					34	
		실내악					34	34	68	
	미술					17	17	34		
영 어		34	34	51	51	51	51	272	272	
선택	한문	40	40					80	163	
	정보				41			41		
	제2외국어			42				42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24	24	24	24	19	19	134	306	
	동아리	17	17	17	17	17	17	102		
	봉사	5	5	5	5	5	5	30		
	진로	5	5	5	5	10	10	40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	8	8	8	8	8			
학기당 총 시수		561	561	561	561	561	561	3,366	3,366	

6.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내신 성적 산출 포함)

- 가. (학사관리) 전입, 편입학, 재입학, 부적응자 등 학사 관련 제반사항은 해당교육청과 협의하여 중점학교별로 자율 결정
- 나. (내신성적) 재학생의 내신성적은 학교별로 자율 결정
 - * (예시) 중점과정에만 편성된 과목은 중점학교 동일분야 내에서 산출, 중점과정과 일반과정에 공동으로 편성된 과목은 해당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 등

7. 입학까지 앞으로 하게 되는 일은?

- 가. 학부모 초청 설명회 개최(예정)
 - 1) 일시 : 2010년 12월초
 - 2) 장소 : 계룡중학교 시청각실
 - 3) 내용 : 교육과정(3개년), 전공과 관련된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
 - 4) 참석 대상 : 음악중점학교 합격자와 보호자
- 나. 학부모 초청 강연회 실시
 - 1) 일시 : 2010년 12월초
 - 2) 장소 : 계룡중학교
 - 3) 초청 강사 : 이흥수 교수(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 4) 내용 : 음악활동을 왜! 해야 하는가?
- 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1) 일시 : 2011년 2월 중순
 - 2) 장소 : 통영일대
 - 3) 내용 : 음악중점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

8. 고등학교 진로와 연계

- 2014년 통영에 경상남도 최초로 공립 예술고등학교 개교 예정

선생님! 당신이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지난 10월 20일 교육감님께로 훈훈한 편지 한통이 도착하였다. 항상 교직계를 모란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회에서 선생님을 칭찬하는 한 할아버지의 손자와 담임선생님과의 사연이었다. 체벌논란으로 멍들어가는 교단에 ‘아! 우리교육은 아직 사랑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어 가슴 뿌듯한 마음에 김해 계동초등학교로 향했다.

주인공 이순옥선생님은 26여 년을 뒤에서 묵묵히 우리 교단을 지키신, 교사로 불러 드리기 보다는 진짜 선생님이시라는 첫인상이었다. 선생님은 지금은 계동초등학교에서 3학년 과학 전담선생님을 맡고 계신다고 하셨다. ‘동학년의 보배로 보이지 않게 남을 배려하시는 모습과 아울러 과학 전담선생님으로서 실험 및 수업준비 등 학습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은 옆에서 보는 이에게 귀감이 된다’고 동학년 선생님들의 칭찬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첫 만남이었다.

▶ 선생님, 준서 할아버지께서 교육감님께 선생님을 칭찬하시는 편지 보내신 것 알고 계시는지요?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별일도 아닌데……. 제자가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선생님들도 저랑 똑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 준서는 어떤 아이였지요?

우리 반 설준서는…….

평소 밝고 건강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아이로 책도 좋아하고 특히 만화그리기를

좋아해서 만화가가 되는 것이 꿈인 아무진 아이입니다. 합창부 부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정진하는 멋지고 사랑스런 아이입니다. 준서에게 욕심을 좀 부린다면 ‘우리 준서가 책만 읽지 말고 운동을 좀 좋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 선생님, 준서에게 언제 어떻게 일이 생겼는지요?

꼭 작년 이맘때의 일입니다. 계동초등학교 4학년 6반 담임을 맡고 있었고, 32명의 아이들이 계동의 파스한 햇볕을 받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5교시 수업이 채 마치기도 전에 준서가 배가 아프다고 하기에, 어머니와 통화한 후 곧바로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지라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준서는 다음날도 결석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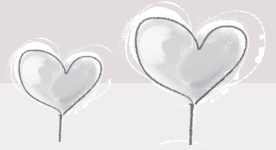
다음날 오후에 전화를 해 보니 장유병원에서 장염이라 한다고 약을 먹고 있다고 했고, “괜찮아지겠죠”하고 어머니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도 결석을 했기에, 1교시 시작 전에 전화를 해보니 어머니께서 “선생님! 우리 준서 어떡하면 좋아요?” 하며 영영 우셨습니다.

이미 앞날 저녁 준서는 심한 탈수증세로 인해 쓰러졌고, 119를 불러 장유병원에 갔으나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대로 준서는 부산동아대 병원으로 갔으나 동아대 병원에서도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니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에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부산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하고 어리둥절하여 말이 나오지 않았으나, 아이의 상태의 심각성이 심하게 다가왔고,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친 후 교장,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바로 보건선생님과 함께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서 부모님과 외할아버지가 준서의 곁을 지키고 계셨는데 준서는 병원에서 탈수 상태가 너무 심해 전해질이 몸속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동공이 빛을 잃고 향문이 열려져 있으며, 30분 정도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고 의사선생님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외할아버지께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고 준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아예 말씀을 하시질 못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옛그제까지만 해도 씩씩하게 교실에서 공부하던 우리 준서가……. 아니 어찌 이런 일이?’ 한동안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펄펄 쏟아져 나와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리 준서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준서 살려야 한다고……. 우리 준서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런 아이인데 이럴 수는 없다고…….’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 응급실 앞에서 영영 울었습니다. 옆에 계신 보건선생님도 영영 우셨고 우리는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응급실이라 면회시간까지 기다려 중환자실의 준서를 면회했는데 준서는 온 몸에 알수도 없는 여러 가닥의 선을 달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불명으로 가쁜 숨을 몰



아쉬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40mmHg 이하로 떨어져있었습니다. ‘내가 의사였다면……. 내가 저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면…….’ 온갖 생각이 머리를 지나갔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문외한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준서 어머니를 붙잡고, 외할아버지를 붙잡고 우리 준서 살리자며 두 손을 붙잡고 우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학교로 돌아와서 교장, 교감선생님께 경과를 말씀드렸고 교장, 교감선생님도 여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선생님 그때를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금 생각하면 생각도 하기 싫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사실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준서를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의사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내가 준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자식을 낳아 기르는 두 아이의 엄마다. 엄마의 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부처님도 우리 준서를 살려 주실 거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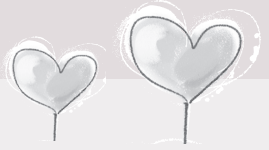
▶ 그 이후 준서는 어떻게 되었지요?

3일 후 3학년 때의 준서 담임선생님과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에도 준서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부모님과 외할아버지께서는 깊은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준서 어머니와의 통화는 매일 몇 차례씩 계속되었고 “우리 준서 꼭 살리자, 우리 준서 다시 건강해 질 거예요”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입원 후 10일쯤 지났을 때였을까 믿기지 않을 기쁨이 아닌 기적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준서를 만나러 중환자실을 갔을 때로 기억됩니다. 면회시간을 기다려 준서의 얼굴을 보러 “준서야~ 선생님이 왔다. 선생님이야~ 우리 준서 선생님 기억하지? 내 목소리 들리지? 우리 준서 선생님 목소리 잊지 않았지?” 하며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있는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자 준서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기쁘고 놀란 나머지 “준서야, 선생님 목소리 들리면 선생님 손 한번 잡아줘~” 라고 말하자 그 힘없는 손으로 내 손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 왔던 일인가? 얼마나 기도했던 일인가?’ 준서는 내 말을 알아듣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선생님, 준서가 다시 회복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내 교직 생활 평생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 감동과 전율은 내 남은 교직 생활의 기쁨이고 활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로 돌아와 이 기쁜 소식을 교장, 교감선생님, 우리 학년 선생님들께 전했고, 소식을 들은 선생님들도 내 자식의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차례 병원에 다녀왔고,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에 엄청난 병원비 걱정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함께 걱정을 해주셨고, 전교 어린이회를 거쳐 학생, 교사, 부모님들께서도 동참을 해 주셔서 500만원의 성금을 부모님들께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따뜻한 마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준서의 의식이 조금씩 회복되자,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다녀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친구들은 준서의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했고, 아이들의 얼굴에도 활기찬 웃음이 생겨났습니다. 준서가 글을 직접 읽지는 못하지만, 선생님이 가져가서 읽어 주시면 된다면 우리 반 친구들이 준서에게 편지를 쓰기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참 기특한 제안이었습니다. 준서와 우리 반 아이들의 편지는 계속되었고, 준서는 눈으로 고개로 답장을 해 주었습니다. 학급 홈페이지에서도 준서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면 준서의 부모님께서 프린터를 해서 읽어 주셨습니다.

▶ 선생님과의 준서에 대한 사랑으로 준서가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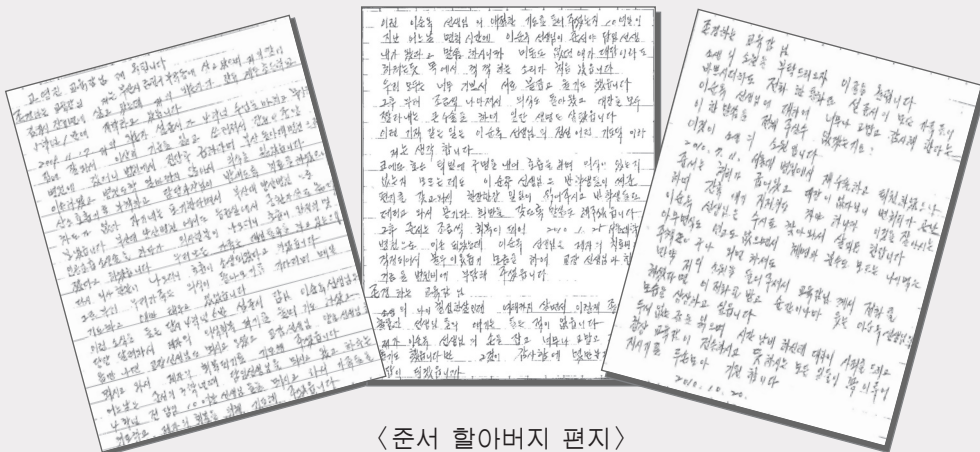
요즈음도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준서를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달라고…….’

지금의 준서를 있게 한 건 부모님과 가족의 기도와 정성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자신이 생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곁에 돌아온 아이 준서……. 그저 고맙고 고마울 뿐입니다.

선생님은 만남 마지막까지 겸손과 제자 준서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돌아 나오는 길에 동학년 선생님들도 ‘이 이야기가 교직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떨어진 교직에 대한 자존심을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셨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 사랑으로 우리 교육의 희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편집위원 구현숙〉



〈준서 할아버지 편지〉



독서에 대한 단상



신 상 국
창원 명곡초등학교 교감

저에게 ‘독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스스로 없이 ‘가을’과 함께 ‘천고마비(天高馬肥)’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 왔고 지금도 이 두 단어를 독서와 연관시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가을을 맞이하여 책을 읽자는 등, 선선한 날씨는 책 읽기가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학생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자는 등 가을은 독서와 연관된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계절은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독서명언에는 항상 가을이 언급되면서 책을 많이 읽어라고 하지만 그것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근거는 별로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독서는 마음을 살 찌운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독서는 인생의 길라잡이다’ 등등 뭔가 구체성이 결여된 문구였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슬로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치고 독서를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동서양 혹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독서’와 ‘인생의 삶’과는 어느 정도 정적(positive)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독서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독서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독서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지 나름대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독서의 의미를 한자를 가지고 풀어 봅니다.

독서는 한자로 讀書입니다. 읽을 讀(독)과 쓸 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먼저 읽을 독(讀)을 파자(破字)해 보면, 말씀 언(言)과 팔 매(賣)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읽을 독은 결국 ‘말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매매(賣買)라고 합니다. 이른바 팔 매와 살 매입니다. 이 팔 매와 살 매의 차이는 선비 사(士)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바로 이 선비 사(士)입니다. 예부터 사(士)는 요즈음 식으로 본다면 ‘교육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교육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팔 매(賣)에 바로 선비 사(士)가 들어 있습니다. 요즈음 식으로 보자면 이것은 ‘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있어서 필요한 전제입니다. 만약 사는 사람 즉, 살 매(買)에 선비 사(士)

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바로 상거래 질서의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즉 팔 때에 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파는 사람의 양심을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의 의미는 바로 교육 받은 사람이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서에서 독(讀)이 ‘말을 판다’는 의미는 바로 많은 책을 읽고 느끼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고 보다 합리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말을 판다’고 하였지만 이 말에는 행(行)도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말과 행의 문제는 옛날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논어」에 보면 놀언민행(訥言敏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즉, 교육받은 사람은 말은 어눌하게 하지만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말의 성찬에 대해 경계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독서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독의 부수에 말씀 언(言)이 있다는 것은 곧 말의 화려함(巧言令色)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書)는 쓸 서(書)입니다. 서에는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몇 년 전, 모 텔레비전 방송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과 이완용의 글을 가지고 경매가를 매기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김구선생님의 글은 만년에 수전증으로 인해 글의 획이 한마디로 비뚤비뚤 하였지만, 이완용의 글은 당대의 명필답게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 잘 쓴 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매가는? 상상에 맡깁니다. 당연히 김구 선생님의 글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글을 가지고 얼마 얼마 하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지만 김구 선생님의 글이 이완용의 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은 바로 글에 김구 선생님이 살아온 인품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는 관리들 등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신언서판(身言書判)이었습니다. 즉, 외모, 말솜씨, 글씨, 판단력이 그것입니다. 이를 요즈음식으로 보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아, 저 사람은 이런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그 사람을 나름대로 판단을 할때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전제하여 상대방의 외모, 말씨, 글씨, 판단력 등을 종합하여 저 사람은 괜찮다, 아니다 혹은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신언서판의 기준에서 요즈음 중요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신(身)과 언(言)입니다. 서(書)와 판(判)은 별로입니다. 이른바 비주얼(visual)시대로 ‘보는 것이 믿는 시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몸짱’, ‘얼짱’을 강조하고 이 몸짱, 얼짱이 되면 사람 자체도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500년 전에 살았던 순자(荀子)는 「비상(非相)」편에서 외모 지상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나라, 은나라의 멸망을 초래한 걸(桀)왕과 주(紂)왕은 인물도 잘 생겼을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도 뛰어났지만, 덕(德)이 부족하여 나라를 망쳤다고 합니다. 반면 주나라를 세운 주공(周公)은 키도 작고 굵사였지만 나라를 창건한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에서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할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書)와 판(判)입니다. 어떻든 서(書)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과자한 독과 서를 합하여 보면 ‘독서(讀書)’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자신의 말과 행동 및 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밑바탕이 된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만약 독서라는 개념이 이렇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앞서 독서와 독서교육은 분명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고털이범이 은행 금고를 털기 위해 금고에 관련된 많은 책을 읽고 금고를 털었다고 합시다. 이 금고털이범은 분명 금고에 관련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즉, 독서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독서를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교육’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의 경우에도 교육이라는 개념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세끼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학교에서는 점심이라는 급식을 통해 위생교육, 식사예절 등 이러한 교육적 요소를 학생들이 내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의 독서는 그냥 독서가 아니고 독서교육입니다. 즉, 독서를 통해 가치로움을 지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로움’도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합니다.

독서교육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험의 확장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의 중요성은 ‘노마지지(老馬之智)’의 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길을 잃은 무리가 늙은 말이 이끄는대로 가다 보니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중요성은 정작 생활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자연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시대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적 지식 즉 직접지가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경험을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으로 나눈다면 위의 예는 직접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수는 없습니다. 독서는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해보지 못한 혹은 겪어 보지 못한 경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른바 간접경험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간접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직접경험은 직접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내 스스로 참여하여 느껴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독서는 본인 스스로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백범 김구의 일지를 읽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백범 선생님의 생각과 그 당시 상황, 나라를 되찾으려는 불굴의 의지 등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삶을 반추(反芻)해보고 삶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우물 안만이 자신의 세계라고 여깁니다. 이는 자신이 소왕국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만 세상은 엄연히 우물 안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Platon)은 이런 생각을 동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굴의 벽면만을 보고 살아온 사람은 햇빛이 들어와 비치는 동굴 벽면의 모습만이 세상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한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동굴 밖을 나와 동굴 안과 다른 세상을 보고 동굴 안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해 본들 믿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세상의 참 존재인 이데아(idea)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지만, 사고와 관련하여 보면 이른바 사고의 경직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남의 생각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가 곧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서는 바로 이러한 우물 안의 세계를 벗어나게 해 줍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세상에서 경험한 내용을 읽고 느끼고 실천하면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생각하도록 해 줍니다.

현대 사회를 다원화 사회 혹은 다양성 사회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해주는 자세가 있어야 다양성이 인정되며 이 다양성 속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회의 합일점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관용(Tolerance)입니다.

셋째, 시공(時空)의 초월입니다.

‘고전은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고전(Classic)은 우리 인류에게 그 무언가의 귀중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에도 끊임없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는 책입니다. 비단 고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책은 시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여기 현재에서 어떤 책을 읽고 있지만 그 책이 3000년 전의 책이든 1000년 전의 책이든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책이라면 그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나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논어』 『학이』편 첫장에 인부지이불온(人不知而慍)이면 불역군자호(不亦君子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그 당시 공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공자의 인간적 고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른바 약육강식의 시대인 춘추시대에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돌아다녔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군주)없고 말년에 공자학숙(원)을 열어 제자 양성에 전념하다 생을 마친 공자입니다.

아는 것 많고 실천력 강하고 다재다능한 자신에게 나라의 경영을 맡기면 3년 안에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몰라준다는 자신의 회한을 담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500년 전의 공자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논어』라는 책을 통해 교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자신의 친구인 임안에게 왜 자신이 수치스러운 벌(남자의 고환을 잘라내는 궁형을 받음)을 받고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편지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마천을 감정 이입하여 보면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의 고민을 만날 수 있고, 불경에서는 석가의 고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과 관계합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표본들이 밤이 되면 살아서 주인공과 좌충우돌하는 내용인데, 책 속의 내용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책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책과 우리의 삶은 유기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감찬과 을지문덕, 세종대왕은 역사적 인물로서 실체는 사라졌지만 책의 내용 속에서는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길



하 정 용
거제 외간초등학교 교사

이른 아침에
비취지는 곳만 비추는
머리 빛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과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얼마 가서는
으스스한 땅 빛으로 올랐습니다.
내 발자국 밑으로 낙엽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과 땅 가지가 발목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산 머리 가까이에서는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온 달빛으로 올랐습니다.
세상의 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세상 속의 나를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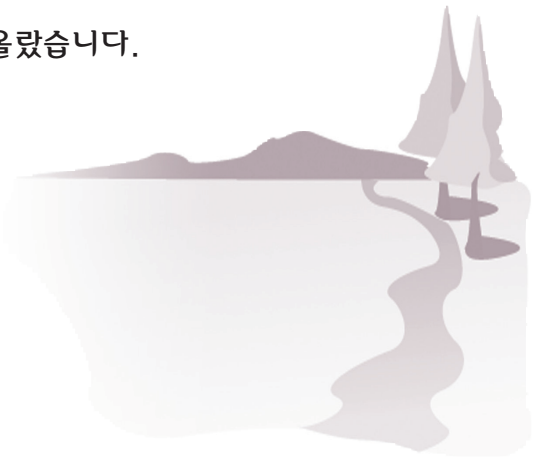
산 머리에 서니
붉은 햇빛이 올라 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만 바라보았습니다.

손 불 빛이 스칩니다.

난
선명한 나무계단 선을 밟고
들쭉날쭉 높고 낮은 돌계단 선을 밟고
밝은 땅 빛 어두운 땅 빛을 따라 내려갑니다.

땅 가지를 차 주춤하고
돌맹이를 밟아 휘청하지만
고개 들면
드러나는 긴 길 선을 따라 내려옵니다.

(2010.11.4. 아침)





예영이와 함께 한 잊지 못할 추억

- 학부모(어머니) 참여 수업 -



유 순 주

통영 통영유치원 학부모

바쁜 삶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잘 커 주는 것이 고마울 때가 많다. 막내 7살짜리 예영이는 여느 때처럼 안내장을 엄마 침대 위에 반듯이 펴서 갖다 놓았다. 날짜가 점점 다가와질 때마다, 예영이는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한껏 흥미로움과 기대에 부풀어서 미리 이야기하곤 했다.

예영이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는 길이 행복했다. 예영이는 아침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길을 엄마와 함께 가는 것이 마냥 좋아서 나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설명해 주듯이 계속 말을 했다.

유치원에 도착해서 먼저 강당에서 ‘좋은 부모 되기’ 학부모 강의를 들었다. 매 순간 나 자신을 반성해가며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 예영이를 많이 사랑하고 함께 해 주는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다.

그다음 활동으로 앞마당에서 나는 ‘예영이가 할머니 될 때까지 엄마 아빠 사세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귀에 엄마를 예쁘게 그린 나무목걸이를 목에다 걸고 딸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자연물 찍기’이다. 주위에 있는 나뭇잎을 몇 장 구해왔다.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가을잎이 되도록 해서 손수건에 찍어보았다. 예영이는 너무나 좋아했고, 집에 와서도 그 잎을 보고 할머니께 보여드리기도 했다.

두 번째 ‘메주 만들기는 즐거워’이다. 매우 재미있어했고, 활동이 모두 끝난 후에도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직접 메주콩을 찧어서, 틀에 집어넣어 메주를 만드는 작업을 예영이와 함께 ‘메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 보니 정말 나도 재미가 있어서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집에 넣어둔 메주를 한 번씩 쳐다보며 관찰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였다.

세 번째 ‘뱅글뱅글 돌아가는 팽이야’이다. 어쩔 그리도 준비를 잘 해 놓으셨을까? 팽이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도토리도 팽이도 만들어서 함께 돌려 보는 것이었다. 나는 이 귀한 도토리를 다 어디에서 구했냐고 선생님께 물어 보니, 예영이 담임선생님께서 멀리 시골까지 가서 애터지게 구해 온 것이라 했다.

네 번째 ‘숲속 자연물을 찾아서’이다. 숲속 자연물을 찾아서 루페로 관찰도 하고, 목걸이를 만들기도 했다. 예영이와 나는 따로 2개를 만들었다. 예영이는 루페로 관찰하고 나서 이름을 적을 때 목걸이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겠냐고 하니, 바로 ‘빨간 세상’이 나왔다. 왜냐하면 단풍잎, 빨간 물든 잎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도 거들어 보았다. 엄마 목걸이는 ‘깊어가는 가을’로 정했다. 지금 거실에는 두 개의 자연물 목걸이가 걸려 있다.

다섯 번째 ‘인디언 놀이’이다. 이 활동에서 예영이는 인디언이 되고 엄마와 담임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사진 찍어주시는 선생님까지 계셨다. 색색깔 가발, 허수아비, 짚으로 만든 움막, 인디언이 되기 위해 인디언 분장을 하는 것까지,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다. 예영이가 선택해 준 가발을 쓰고, 함께 찍은 사진도 영원히 남을 것이다. 예영이는 내가 힘들게 그려준 인디언 분장을 저녁 늦게까지 지우지 않았다.

딸과 엄마는 7가지 보물을 목에 걸고 양손에 들고 가방에 넣어 와서 집에 한 보따리 펼쳤다. 그리고 예영이 아빠에게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교육과 교육자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유치원 선생님들이시들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가을의 자연이 주는 자연물에서 얻은 그 재료로 이렇게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거리로 연구하시고 준비하신 점에 정말 놀랐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열성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로서도 너무나 뜻 깊은 시간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예영이와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며 함께 만들어 온 여러 가지 물건

은 평생 아이의 재산이 될 것이다. 자연물 찍기 활동에서 손수건에 일부러 적었다.

2010. 10. 30. 바다반 구예영 ♡ 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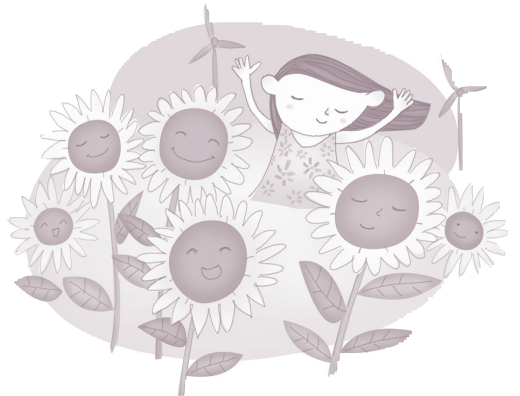
표 정

정 다 연

진주 망경초등학교 5학년

표정은 사람들의 마음에 표시같다
기쁠때 방긋방긋 화날때 찡긋찡긋
표정은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손거울

거울이 없더라도 내 모습 알 수 있다
사람들 하하호호 내 모습 예쁜 모습
표정은 내 모습 알 수 있는 요술같은 마법약



(제10회 경남 어린이 학, 예술대회 시조 고학년 장원 작품)



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김혜경

창원 명동초등학교 보건교사

성석제의 소설 한편이 한껏 분주하여 메마르던 나에게 청량제와 같은 시원함으로 나의 무디어진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이 소설을 읽어내려 갈 때에는 얼마나 웃었던지 눈가에 눈물을 머금기까지 했지만 결국 그 소설은 나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며 책장을 덮게 하였다. 작가는 소설 곳곳에 에피소드를 숨겨 놓은 채 독자로 하여금 배를 잡고 웃게 하다가 그 웃음 뒤에 이렇게도 많은 생각을 머금게 하더니 그의 작가적 재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소설 속 주인공인 황만근은 남들이 말하는 반 훈이었다. 더 이상 가난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으며, 무시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시를 받았으나 그는 이 모든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허허거리며 웃고 다녔다. 아이들까지 그를 놀렸으며 그는 그렇게 놀림을 당하면서 동정은커녕 오히려 이용을 당했고 결국엔 그 이용을 당하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아주 슬픈 이야기이다. 그 슬픈 이야기 속 바보 아저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작가는 거침없는 어투로 우리 농촌사회의 부채위기와 농촌인심이 사라진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인간관계속의 비애를 재미있게 전개해 간다.

나는 책을 다 덮고 나서 내 안에 깊은 물음 하나를 던졌다. 내 인생의 모토가 무엇이었는지? 행복이었던가?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가? 소설 속의 주인공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 할

정도의 감각도 소유하지 못했고, 그가 노력하고 성취하고자 했던 애쓴 흔적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행복했다면, 그 모자람으로 인해 행복했다면 그 모자람 속에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포되어 있기에 나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는 걸까?

그는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사람들은 그의 몸을 걱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술값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잔치가 있어도 바보 황만근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동네에 술 마실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처럼 알고 찾아가서 곤드레 만드래 말술을 푸곤 했다. 야망이 없는 그에게는 타협도, 권력에 대한 굽실거림도, 위선도 필요치 않았다. 그저 그렇게 황만근은 스스로에게 충실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판 따위에 초연했으며 타인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빈곤을 느끼지 않았으며 주고 받기식의 사랑법이 아니라 내 능력이 되는 만큼 주고, 결코 댓가를 생각조차 못하던 철저히 자신의 행복을 경영한 행복의 경영자였다. 자신이 행한 선에 대해 말 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지도 않았고 준 것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고 속상해 하며 벌렸던 손을 거두어들이지도 않았다.

나는 바보 황만근 앞에서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거두어들일 뻔했던 손, 내 작은 손을 스스로 얼마나 칭찬하며 높아지려 했던가에 대한 부끄러움일까?



울게 하소서(Lascia Ch'io Pianga)



김민주
창원천광학교 교사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이 슬픔으로 고통의 사슬을 끊게 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나를 울게 하소서

비참한 나의 운명!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아르미다, 무정한자, 그 심오한 힘으로
내게서 나아가
내 모든것은 이제 영원한 고통
지옥의 형벌 다만 내게 남았네,
주여! 아! 자비를, 울게 버려 두오

울게 버려주 슬픈 운명에
나 한 숨 짓네 자유 위해
나 한 숨 짓네 나 한숨짓네 자유위해
울게 버려주 슬픈 운명에
나 한 숨 짓네 자유 위해

헨델이 작곡한 최초의 이탈리아 오페라 ‘리날도(Rinaldo)’ 중 제2막에서 알미레나가 부르는 아리아 ‘울게 하소서(Lascia ch'io pianga)’는 바로크 오페라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리아로 영화 파리넬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곡입니다.

십자군의 영웅인 리날도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라센 왕 아르간테와 그의 연인 아르미다는 마술책으로 리날도의 약혼녀 알미레나를 정원에서 납치합니다. 이후 아르미다의 마술공연에서 아르간테는 알미레나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데 이때 알미레나가 외면하면서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울게 하소서’입니다.

내용 상 이 곡은 알미레나가 부르는 아리아이므로 여성 노래가 맞지만 헨델이 이 곡을 발표했던 때는 1711년이었습니다. 당시 오페라에 출연했던 가수들은 주로 교회 성가 대원이었는데 그 시기의 여성들은 교회 성가대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음악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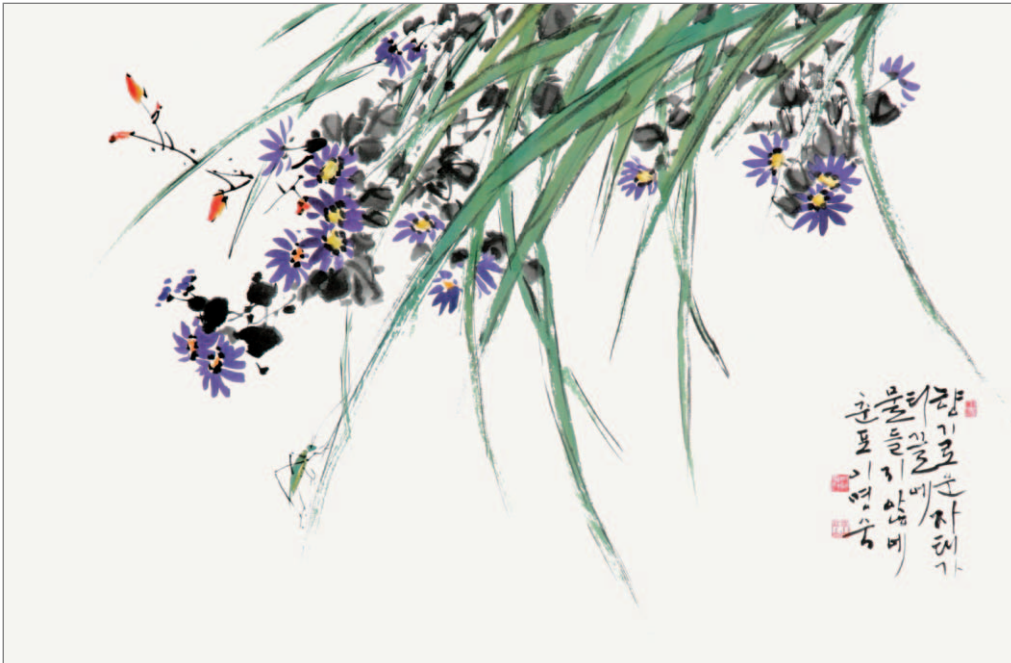
그래서 무대에서 소프라노를 불러야 할 때는 변성 전의 미성을 지닌 소년이 부르거나 어린 여성 역의 노래를 하기 위해 미성을 지닌 소년이 변성 전에 거세하여 계속 소프라노로서 활동 하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거세를 거쳐 변성 전의 미성을 유지하고 있는 남자 가수를 '카스트라토'라고 합니다. 카스트라토는 거세를 통해 여성 같은 고음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사실 신체적으로 여성이 아니므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독특한 노랫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파리넬리'에서 이 곡을 부르는 카스트라토가 파리넬리입니다. 파리넬리는 그 때까지 기교를 앞세워 노래를 부르던 것과는 달리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노래를 부름으로써 관객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작곡가인 헨델을 실신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카스트라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 해 카운터 테너와 소프라노를 합성하였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보통 여성 소프라노가 이 부분 독창 역을 맡고 있고, 남성 가수 중 카운터 테너가 가성을 사용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작품명 : 춘포



이 명 숙

- (현) 창원 성호초등학교 교장
- 경남 미술대전 초대작가
- 경남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MBC 경남여성회대회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성신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교원에능연구대회심사위원 역임
- 한국미술협회 회원, 경남서단 회원

초등학교 취학 이렇게.....

◆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초등학교 취학 절차 및 흐름도

